

忠北地域 社會經濟史

김신웅·정삼칠 공저



충북개발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발 간 사

충북은 남한강과 금강유역을 배경으로 태고적 선사시대 때부터 한반도 인류의 삶의 터전이 되어왔으며, 그 속에서 국토 내륙의 경제적 기반을 일구며 살아오고 있다.

충북은 각종 선사유적을 통해 이미 오래 전부터 생활의 터전이 되어왔음이 증명되고 있고, 남한강 줄기를 따라 중원문화를 꽂피우고, 금강을 따라 서원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처럼 충북이 오랜 역사적 토대와 문화를 발전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고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아직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기획총서는 충북을 대상으로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경제발전과정의 궤적을 개관해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충북지역 사회경제사이다.

본 기획총서발간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은 방대한 역사적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이를꼼꼼하게 정리하여 충북의 사회·경제·문화적 토대와 역사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역사적 가치관이 희박해지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충북지역 사회경제발전을 주체적으로 정리하여 자주적 지역사관 정립에 필요한 토대와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지역대학에서 오래 동안 후학을 양성하고 정년퇴임을 하신 김신용 교수와 본원의 제자 정삼철 박사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스승과 제자가 함께한 아름다운 학문적 동행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본 저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과 역사적 발전 속에서 충북은 항상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국가의 요충지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이다.

특히,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내륙충북은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전략적 측면에서 당시의 수도와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함께 충북지역에서 떠받쳐 오거나 생산기반이 되어왔던 다양한 사회경제 문화적 토대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충북 사회경제 역사적 기반과 자긍심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21세기 미래발전을 향해 새로운 사회경제발전의 역사를 써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선 4기 이후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도정 목표로 삼고 있는 충북은 최근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꿈꾸며, 중부권시대의 당당한 주체이자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본 기획총서는 경제특별도의 역사적 뿌리를 재확인하고 나아가 충북지역의 새로운 미래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과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모쪼록 본 기획총서를 통해 온고지신의 지혜를 터득하고 나아가 충북의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발전에 널리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서의 기획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김신웅 교수와 정삼철 박사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8년 12월 18일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목 차】

※ 발간사

제1장 상고시대 충북의 사회경제기반 3

- | | |
|-----------------------------|---|
| 1. 삼한시대 충북지역의 사회경제 개관 | 3 |
| 2. 삼국시대 충북지역의 사회경제 개관 | 9 |

제2장 고려시대 충북의 사회경제기반 25

- | | |
|-----------------------------|----|
| 1. 고려시대 충청북도의 사회경제 개관 | 25 |
| 2. 고려시대 양광도의 군배치 | 34 |
| 3. 고려시대 양광도의 생산시원(I) | 47 |
| 4. 고려시대 양광도의 생산시원(II) | 56 |
| 5. 고려시대의 청주 | 64 |
| 6. 고려시대의 충주(I) | 75 |
| 7. 고려시대의 충주(II) | 83 |

제3장 조선시대 충북의 사회경제기반 101

- | | |
|--------------------------|-----|
| 1. 조선전기 충청도 | 101 |
| 2. 조선전기 충청북도의 산업구조 | 114 |
| 3. 조선후기 충청북도의 산업구조 | 144 |

제4장 조선시대 충북의 인구와 성씨변화 163

1. 조선시대 충청북도의 인구변화 163
2. 조선후기 · 일제하의 성씨변동 180

제5장 조선시대 청주목의 사회경제기반 199

1. 조선말기 청주목(군)의 인구와 군병 199
2. 조선후기 청주목 권역의 사회경제구조 211
3. 조선후기 옥천군의 사회경제구조 217
4. 조선후기 문의현의 호구와 성씨 224
5. 조선후기 영동현의 인구와 성씨변화 233
6. 조선후기 청안현의 인구와 산출물 246
7. 조선후기 황간현의 호구와 군병 253
8. 조선후기 보은현의 사회구조(I) 260
9. 조선시대 보은현의 사회구조(II) 269
10. 조선시대 진천현의 사회구조 280

제6장 조선시대 충주목의 사회경제기반 297

1. 조선시대 충주목의 사회경제구조 297
2. 조선시대 단양군의 사회경제구조 325
3. 조선시대 청풍군의 사회경제구조 341
4. 조선시대 괴산군의 사회경제구조 358
5. 조선시대 제천현의 사회경제구조 375
6. 조선시대 연풍현의 사회경제구조 400
7. 조선시대 영춘현의 사회경제구조 413

제1장 상고시대 충북의 사회경제기반

1. 삼한시대 충북지역의 사회경제 개관
2. 삼국시대 충북지역의 사회경제 개관

제1장 상고시대 충북의 사회경제기반

1. 삼한시대 충북지역의 사회경제 개관

1) 머리말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 각 민족들은 각기 문화수준에 따라 학문의 발전과 민족의 독자성(獨自性)을 강화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민족은 "근대화"에 매진하여 관심을 쏟아 오면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전개되면서 지역주민들은 현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 지역의 향토사(鄉土史)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그 뿌리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서 그 시원을 고대사(古代史)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상고문화(上古文化)의 원천을 분명히 구명하여 보다 넓은 사상과 접하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본 연구는 "충북지역 경제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 충북의 옛 모습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해방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학 연구수준은 높다고 인정되면서도 결국 총체적인 개괄서에 그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지방사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어 향토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역사의 연구가 그 근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주체들 스스로가 미래에 무엇인가 보탬이 되도록 각 분야를 재음미하여 향토자료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고대사 연구는 사료(史料)가 희소하므로 연관된 각 분야의 연구 성과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초기의 문헌자료는 중국사료(中國史

| 4 | 충북지역 사회경제사

料)에 등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 현존하는 사료로 한반도(韓半島)의 사정이 밝혀진 것은 기원전 2세기 이후¹⁾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2) 삼한시대의 연구사

역사기록상 충청북도의 명칭에 대한 시원을 찾기 위해서 어디까지 소급해야 할 것인가가 과제인데 대체로 현존하는 사료로 볼 때 삼한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다.

삼한에 대한 기록은 중국의 기록으로서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書 東夷傳 : 보통 魏志 東夷傳이라 함)을 들 수 있다.

전자(前者)에 의하면 마한, 진한, 변한의 삼조(三朝)가 있으며, 진한(辰韓)은 옛날 진국(辰國)이라 한 것으로 보아 북쪽에 고구려 부여 한사군(大餘 漢郡縣)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남쪽에서 발전하고 있던 사회가 삼한(三韓)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삼한시대의 전체적인 사회구성으로 보면 마한(馬韓) 54개국, 진한(辰韓)과 변한(弁韓)에 각각 12개국의 융락국가(邑落國家)가 속해 있어 총 78개의 국가명이 보이고 있다.

마한 54개국 중 대국은 만 여가(萬餘家), 소국은 천 여가(數千家)로 총 10여만 호이며, 변·진한(弁·辰韓)은 대국이 4~5천가(千家), 소국은 6~7백가(百家)로 총 4~5만호였다고 한다. 그러나 삼한과 관계된 기록은 『진서(晋書)』²⁾를 끝으로 한(韓)의 명칭(名稱)이 보이지 않는다.

3세기 후반기의 경우 백제로서는 고이왕(古爾王 : 234-286년), 책계왕(責稽王 : 286-298년) 시대이고, 신라로서는 유례왕(儒禮王 : 284-298년) 시대로서 과연 마한, 진한이 이때까지 존속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다. 최치원(崔致遠 : 857~ ? 신라말기 학자)의 삼한에 대한 인식에 의하면 변한이 백제가 되었다고 한다. 삼한문제(三韓問題)를 비롯하여 역사지리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

1) 井上秀雄 著, 金東池 金森襄作 共著, 「古代韓國史」, 日新社, 1981. 2. 15, 28쪽.

2) 四夷 東夷傳 馬韓條에는 咸寧(275~279), 大康(280~289), 太熙(290) 때에 馬韓은 普에 사신을 파견하여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方物을 바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후기이며, 이에 먼저 접근한 사람은 한백겸(韓百謙 : 1552~1615년)과 이세구(李世龜 : 1646~1700년) 등이다.

한백겸(韓百謙)은 그의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에서 『후한서(後漢書)』 삼한전(三韓傳)을 소개하고, 마한·진한·변한의 구지(舊地)를 현지(現地)에 비정(比定)³⁾하였다.

이세구(李世龜)⁴⁾의 “동국삼한사군고금강역설(東國三韓四郡古今疆域設)” 그리고 한진서(韓鎮書), 정약용(丁若鏞) 등이 삼한강역(三韓疆域)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이외에도 여러 학자⁵⁾들이 언급하고 있다.

조선초·중기까지는 고대사 인식체계가 단군조선 기자조선(箕子朝鮮)에서 위만조선(衛滿朝鮮) 및 한사군(漢四郡)을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며, 조선후기에 사학사상(史學思想)으로 정통론(正統論)이 등장하면서 기자조선(箕子朝鮮)을 계승하는 정통국가로 마한을 인식하게 되었다.

삼한문제(三韓問題)는 중국사료에서 시작하여 조선후기까지 그 연구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에는 마한의 옛 땅에 대해 구지(舊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충청북도의 지명, 즉 영춘(永春), 단양(丹陽), 청주(淸州), 충주(忠州), 문의(文義), 진천(鎮川), 보은(報恩), 청산(靑山), 영동(永同)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현 충청북도의 옛 땅은 마한이라고 보아진다.

3) 충북지역의 경제활동 범위

오늘날 우리들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할 수 있고 배달민족의 긍지를 갖게 해 준 것은 고대 사적(古代 史籍 : 『삼국유사(三國遺事)』⁶⁾, 『삼국사기(三國史記)』인 쌍벽의 기록이 없었다면 삼국시대 이

3) “馬緯舊地 今 全羅道 京畿, 江原, 皆其龍 公洪適 永春, 丹賜, 清州, 法州, 龍山, 鎮川, 報恩, 背山, 永同 等地”

4) 이세구 [李世龜1646~1700]는 조선후기 문신이다

5) 洪汝商(1620~1674년), 『三韓認識』, 李漢(1681~1763년), 『三韓正統論』, 安鼎禎(1712~1791년), 『東史綱目』

6) 刊行年代未詳. 대체로 忠烈王 8年 前後, 즉 1281~1283년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 6 | 충북지역 사회경제사

전의 우리 역사는 중국사료인 『삼국지(三國志)』의 동이전(東夷傳)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고대 사적에 의하여 충북지역의 경제활동 범위를 개괄적으로 전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한강 이남의 반도전역에 걸친 부족국가가 큰 덩어리로 통합한 부족연맹사회(辰國)는 세 개의 땅덩어리, 즉 마한, 진한, 변한 등의 삼한으로 발전하였다.

마한은 서쪽에 있어 54개이였는데 모두 나라라고 불렸다. 진한은 동쪽에 있고 12개의 작은 읍(邑)을 차지했는데 모두 나라라고 했다. 변한은 남쪽에 있어 역시 12개의 작은 읍을 차지했는데 이들도 저마다 나라라고 일컬었다.⁷⁾

이렇게 볼 때 삼한은 총 72개국이라 하였지만, 이것은 78개국⁸⁾이라야 된다. 그리고 2자는 8자의 오자(誤字)일 것으로 추측된다.

견훤(甄萱 : 후백제의 시조)이 고려 태조(太祖)에게 올린 글에 의하면 「옛적에 마한이 먼저 일어나고, 뒤를 이어 혁거세(赫居世 : 新羅의 始祖)가 일어났으며, 백제는 금마산(金馬山)⁹⁾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했다.

당시 마한에는 50여국(邑落)이 속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제왕운기(帝王韻記)에는 40개국으로 보이고, 중국 『三國志』 한전(韓傳)에 의하면 54개국이며, 그 명칭들이 나열되고 있으나 그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현 위치를 밝히기가 곤란하다.

『삼국지 마한전(馬韓傳)』에 의하면 마한은 40개국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지명에 따라 그 위치를 보면 동쪽은 전북 임실, 남쪽은 물아혜(勿阿兮 : 무안)을, 서쪽은 진영을(進仍乙 : 금산) 그리고 북쪽은 심성(櫪城 : 파주)까지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충북지역 경제권에 속하고 있는 명칭은 다음과 같이 6

7) 一然, 李民樹 譯, 『三國遺事』, 乙酉文化社, 1991. 3. 10, 51쪽.

8) 『後漢書』에 의하면 法令이 차츰 번거로워 지자 이것을 78개의 나라로 나누니 이들은 각각 萬戶였다.

9) 지금 사람들은 赤 金馬山이 있다고 해서 馬韓을 백제라고 하지만 이것은 대개 잘못된 말이다.

개 지명으로 미을성(木乙省 : 惠州), 내토(奈吐 : 堤川), 낭자곡(娘子谷 : 清州), 금물노(今勿奴 : 鎮川), 잉근내(仍斤內 : 槐山) 그리고 일모산(一牟山 : 文義)을 들 수 있다.

<圖-1> 「東夷傳」에 의한 諸民族의 位置



4) 삼한시대의 산업

4세기 중엽 이전의 반도 남쪽에는 삼한 78개국 소부족(小部族) 국가 시대에 속하였다.

우리나라 상방행렬(商方行列)와 여러 사회(諸社會), 즉 삼한의 위치를 보면 진왕(長王)의 지배하에 있던 주체적인 나라를 마한이라 일컬었고, 영남의 개마족(蓋馬族)은 변한(弁韓)이라 불렸다. 이리하여 한왕준(韓王準)의 남천이래(南遷以來)로 한인(漢人)은 진한, 변한, 마한이라 불렀다.

| 8 | 충북 지역 사회경제사

제1부

마한(馬韓) 안에는 54개의 소부락국가(小部落國家)가 있었으며, 큰 것은 만여가(萬餘家), 작은 것은 수천가(數千家)에 지나지 않아 총 10여만호, 인구는 50만 정도였으며, 삼한 중에서 최대국가인 백제는 원래 54개국 가운데 1개국으로서 한강 하류지역에 거주지였다.

진한(辰韓)은 지리적으로 보아 경기도의 대부분과 강원도의 일부에 위치하여 북쪽의 대방(帶方) 및 낙랑(樂浪)과 교섭하였으며, 변한(弁韓)은 경상도 일대를 차지하였다.

그중 마한(馬韓)은 경기, 충청, 전라의 모든 도에 분포되어 광범위한 평야를 갖고 있었고, 크고 작은 하천과 해안선도 발달되었다.

삼한은 일찍이 농업기술이 발달을 이루었고, 이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부를 축적했고, 이로써 사회 계급분화(階級分化)가 촉진되었다.¹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금속문화는 농기구의 개량에 이용되어 농업생산력을 높였다.

한(漢)의 문화는 이들의 수공업 발달을 자극했고, 그들은 마포(麻布)를 생산하고 양잠(蠶業)을 길러 견포(絹布)를 짜냈다. 당시 외래의 각종 문화는 삼한에 농·공·상업의 발달을 이룩하였다. 이들은 산과 바다 사이에 흘어져 살았는데 고기잡이(漁獵)는 물론 이미 농업(農業)과 양잠업(蠶桑業)이 시작되어 세포(紺布)를 짜고 토착생활을 하였으며, 특히 큰 밤(大栗)을 생산하였다.

소와 말 등 기타 가축들이 있었으나 오직 운반, 농경, 식용의 재산으로만 알았을 뿐이요, 말을 타는 것으로 이용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일상생활의 교통구역이 협소하다는 것과 거기병(車騎兵) 등이 없었던 유치한 사회였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¹¹⁾

그들은 머리에 상투를 짜고 두루마기류(布袍)를 입었으며 가죽신(革靴)과 짚신(草履)을 재화 보물(財寶)로 생각하였다.

산업사적 관점에서 자연의 지배를 받는 원시사회의 산업형태를 채취 경제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인간이 능동적으로 자연을 이용·지배하는

10) 古代民族文化研究所, 『韓國文化史大系(II) 政治經濟史』, 1970. 8. 1 982쪽.

11) 孫哲泰 著, 『朝鮮民族史概論』, 朝鮮文化叢書, 第11輯, 단기 4281. 12. 20, 74쪽.

산업형태를 생산경제로 규정할 수 있다.

인간이 능동적으로 자연을 이용·지배하는 생산경제란 농경문화를 기조로 하고 있다. 따라서 농경문화(農耕文化)의 기원과 발전을 구명(究明)하는 일은 고대사회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해명하는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¹²⁾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중심과제를 전개하려는 것 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

2. 삼국시대 충북지역의 사회경제 개관

1) 삼한시대 충청북도의 옛 지명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주위환경을 이해 할 수 있고, 설명 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충청북도 지역경제의 뿌리를 찾기 위하여 펜을 들었으니 충북지역 경제의 근대화과정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인식의 틀」과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제공하여야 할 책무를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학(先哲)들의 연구업적(研究業績)¹³⁾에 힘입어 삼한,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충북지역경제의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옛 지명(경제활동의 근거지)을 문헌을 통해 재확인해 보고자 한다.

충북지역에 속해있는 모든 지표 영역은 지방사의 요람이 되고, 산하에 불여진 옛 지명은 이 땅을 지키고 가꾼 선조들의 의지와 염원과

12) 『韓國史論』(1) 古代編, 國史編纂委員會, 1978. 1. 30. 139쪽

13) 李內柱 譯註, 『三國史記』(國譯編), 乙酉文化社, 1977. 7. 30(初).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충북편), 1970. 11. 25.

內務部, 『地方行政地名史』, 內務部 地方企劃課, 1982. 12. 10.

忠淸北道, 『地名誌』, 1975. 8.15.

애환이 깃든 자랑스런 지방역사의 한 단편(片鱗)이라 할 것이다. 이들 산하(山河)에 불어 있는 옛 지명에는 이 지역 주민들의 정기가 담겨져 있고, 소박한 인간애가 용해된 멋이 스며있다. 이처럼 선조들의 얼과 함께 생성 변천 발전하여 온 충북지역의 행정구역을 시대별로 나누어서 재음미해 보고자 한다.

인류는 생활이 시작된 이래 말과 글을 만들어 주위의 사물에 명칭을 부여하여 생활의 편익과 문화의 발달을 촉진시켜 왔다.

지명(地名)이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창조된 역사적, 사회적 소산인 글과 말(書語)의 기호(記號)이며, 문화적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기도 하다. 또한 지명은 인간사회와 함께 전승되어 온 유산이며, 국가 구성요소인 영토를 대표하고 있다.

지명의 기원은 우리 민족이 적어도 부족국가(部族國家)를 형성하면서부터 각 지역별로 지명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⁴⁾

우리나라의 지명은 크게 나누어 삼국시대를 비롯하여 통일신라시대, 고려,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및 일제시대와 대한민국수립 이후 현재까지 대체로 7번의 지명개혁을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먼저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충청북도의 지명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주시는 상고시대 마한의 땅으로 백제시대에는 상당현(相黨縣) 고구려시대의 명칭은 낭비성(娘臂城) 일명 낭자곡(娘子谷)이라 하였다.

낭비성은 고구려 영류왕(榮留王) 12년(629년) 8월에 신라가 대장군(大將軍) 용춘 서현(龍春 舒玄)과 부장군 유신(部將軍 廉信)을 보내어 고구려(백제)의 (지금 청주)을 쳐 이겼다.¹⁵⁾ 낭비성은 지금 청주 옛 명칭의 하나이다. 그곳은 신라의 소유가 된지 오래고 또 특히 차변(車邊)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므로 소위 낭비성은 같은 이름으로 다르게 불렸던 지금의 함경도 지방의 어느 곳에 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전투에 관하여는 629년(新羅本紀 第4 眞平王 51년) 및 김유신 전(金庾信 傳)에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있다.¹⁶⁾

14) 内務部 地方企劃課, 『地方行政地名史』, 1982. 12. 10. 14쪽.

15) 農標學會,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史, 1959. 6. 15. 502쪽

낭자곡은 탈해 이사금(脫解 尼師今) 7년 10월에 백제왕이 영토(地境)를 개척하고 낭자곡(淸州)에 이르러 사신을 신라로 보내어 만나보기를 청하였으나 왕은 가지 아니하였다.¹⁷⁾

신라시대에는 서원경(西原京) 살매현(薩買縣) 및 도서현(都西縣) 등이 지금의 청주시(淸州市)의 옛 명칭이다.

서원경은 685년(神文王 5년)에 처음으로 서원소경(西原小京)을 설치하고, 경덕왕(景德王)이 서원경(西原京)으로 개명한 것이 지금의 청주다.¹⁸⁾ 삼년군(三年郡)은 본시 삼년산군(三年山郡)으로서 경덕왕이 삼년(三年)으로 개명하였는데, 지금의 보령군(保寧郡)이 되었고 영현(領縣)이 둘이다. 하나는 청주현(淸州縣)인데 본시 살매현(薩買縣)으로 경덕왕이 청주로 개명하여 지금도 그대로 일컫는다.(淸州의 舊屬縣인 青川) 다른 하나는 고산현(考山縣)으로 본시 굴현(屈縣)으로 경덕왕이 자산(者山)으로 개명, 지금 청산현(青山縣 : 지금의沃川郡 青山面)이다.¹⁹⁾

도서현(都西縣)은 본시 고구려 금물노군(今勿奴郡)인데, 경덕왕(景德王)이 흑양(黑壤)으로 개명하였다(지금 진천군의 대부분). 지금의 진천(지금 忠淸北道 鎮川郡)으로 영현이 둘 있으니 그 하나는 도서현(都西縣)인데 본시 고구려 도서현(道西縣)으로, 경덕왕이 도서(都西)로 개명(改名)하였으니 지금 도안현(道安縣 : 현재 僮山郡 道安面)이다. 다른 하나는 음성현(陰城縣 : 본시 고구려 임흘현(仍忽縣))인데, 경덕왕이 음성으로 개명하여 지금도 그대로이다.²⁰⁾

또 도서현(都西縣)은 본래 고려의 도서현(都西縣)으로 한주(漢州)²¹⁾에 예속되었다.

470년경(慈悲 糜立于 13년)에는 삼년산성(三年山城 : 報恩 烏項山城)

16) 『三國史記』, 卷 第二十一, 高句麗本紀 第八(榮留王)

17) 『三國史記』, 卷 第一, 新羅本紀 第一

18) 『三國史記』, 卷 第三十六, 雜誌, 第五, 地理 三

19) 『三國史記』, 卷 第三十四, 雜誌, 第三 (地理 一).

20) 『三國史記』, 卷 第三十五, 雜誌, 第四 (地理 二).

21) 漢州는 본시 高句麗의 漢山郡으로 新羅가 빼앗았는데景德王이 漢州로 改稱하였다. 領縣이 둘인데 하나는 黃式縣(지금의 利川縣), 또 하나는 巨黍縣인데 高句麗의 駒域縣인데景德王이 巨黍으로 改名. 지금의 龍駒縣(현 龍仁郡 駒城面)이다.

을 쌓았다. 삼년이라 한 것은 성 쌓는 일을 시작한지 삼년에 걸쳐 마쳤으므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660년(太宗 武烈王 7년) 28일에 문도(文度)가 삼년산성(三年山域 : 保寧 唐山域)에 이르러 조서(詔書)를 전할 때 문도(文度)는 동쪽을 향하여 서고, 왕은 서쪽을 향하여 섰다.

삼년산(三年山)은 보령(保齡 : 밀해)의 역(譯)으로 그 이름이 지금의 보은(報恩)의 옛 이름도 되지만, 지금의 충남 보령도 실상은 보령(保齡)의 전음(轉音)인듯 하므로 여기의 삼년산(三年山)은 보령(保寧)에 비정(比定)하고 싶다.²²⁾ 연산군(燕山郡)은 본시 백제의 일모산군(一牟山郡)으로 경덕왕이 연산(燕山)으로 개명하여 지금도 그대로 하니 (지금의 燕岐郡) 영현(領縣)이 둘이다.

하나는 연기현(燕岐縣)인데 본래 백제의 두잉지현(豆仍只縣)으로 경덕왕이 연기(燕岐)로 개명하여 지금도 그대로 불려지고 있다(지금의 燕岐郡 南面). 다른 하나는 말곡현(昧谷縣)인데 본시 백제의 밀곡현(末谷縣)으로 경덕왕이 말곡(昧谷)으로 개명하였는데 지금의 회인현(懷仁縣 : 지금의 忠北 報恩郡 懷北面)이다.

2) 삼국시대의 산업경제

고대 산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농업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는 일찍이 삼한시대이래 저수지와 논(水田)이 발달되어 왔고 역대 왕들은 예외 없이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썼다.

이외에도 양잠(養蠶), 직포(織布), 목축업(牧畜業) 등이 농가의 부업으로 장려되었고, 인삼의 채취와 당나라 차(唐茶)의 이식도 성행하였다. 인삼은 이 무렵에도 이미 명산물(名產物)로 손꼽혀 국제무역품의 중요한 목록이 되고 있었다.²³⁾

삼국시대에도 공통적인 생산기반은 농업경제이며, 생산력에 제작기

22) 『三國史記』, 卷 第五, 新羅本紀 第五(太宗武烈 E)

23) 李瑞根, 『大韓國人』(I), 1973. 11. 15, 442쪽

술의 진보는 일반 민중의 공업기술 발달에 자극은 주고 있었으나 일반사회의 직업적 분화가 행해진 것은 아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급품의 소비수요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생산으로 만족할 따름이었다.

(1) 고구려

고구려(B.C 37~ A.D 668년)는 압록강 종류의 연안과 동가강(佟佳江) 하류, 회인(懷仁) 지방의 작은 평야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5개 부족²⁴⁾으로 이루어 졌다고 한다.²⁵⁾

고구려는 선진 중국민족과 접촉하고 있는 것이 자극되어 급속히 강력한 장치를 조직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정복국가로 출현하여²⁶⁾ 고대 동방제국 중 강대한 민족으로 알려졌다.

정복국가 형성과 함께 단일종교 형태의 민족신(民族神)을 숭배하게 되었는데, 고구려 민족신을 숭배하게 되었다. 고구려 민족은 자연신보다 오히려 조상과 국신(國神)의 숭배에 귀의하고 있었으나 불교가 들어오자 그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변혁되었다.

이들 고구려 민족은 동족인 부여(夫餘)와는 정반대로 굳세고 호전적(尙武的 好戰的)인 가장 용맹한 국민으로 일치단결하여 발전하였고, 팽창기(建國以來 約300년間)에는 동남쪽의 옥저(沃沮, 咸鏡道)와 동예(東穢, 江原道), 서쪽으로는 요하선(遼河線)까지 진출하였고, 북쪽으로는 부여(夫餘)를 위압하였고, 남쪽의 낙랑국(樂浪國)도 위축되었다.

장수왕(長壽王, 413~491년) 만년에는 정복전쟁으로 고구려가 남진하여 영토를 확장하였을 때 현재 충북지방인 괴산, 진천, 치산까지 고구려의 영토 소유가 되었다.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에 따라 한강 유역에서 금강 유역으로 그 수

24) 연노부(漁奴部), 절노부(絕奴部), 순노부(順奴部), 관노부(灌奴部), 계루부(桂婁部)

25) 東 : 沃沮, 西 : 韓民族(漢, 魏, 隋, 唐), 南 : 樂浪國, 北 : 夫餘國, 東北 : 肅慎, 西北 : 鮮卑族 등

26) 264域 1,400餘村을 功破함.

| 14 | 총북지역 사회경제사

도를 옮기게 되었다. 당시는 면적 약 2,000리(里), 가구 약 30,000호(戶), 인구 15만명 중 대가(大家)가 1만명에 달했다. 이들은 산과 계곡(山谷)에서 수렵과 목축을 주산업으로 하였다.

목축업은 당시 노동편성의 중요한 부문이었다. 즉, 군마(軍馬)의 조달, 피혁의 제조 보직의 생산은 반드시 목축업을 전제로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항상 당면한 돈 문제와 흉년(錢餉)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위의 여러 부족을 정복함이 생산물 획득의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금속공예(金屬工藝)는 무기를 만들기 위한 필요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발달되었다.

석공기술(石工技術)은 대공작품으로부터 소공예품까지 돌을 다루는 기술이 크게 발달되어 있었다. 특히 석곽(石廓)은 웅대한 느낌과 그 정교한 기술은 놀라운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당시 고구려 민족은 이미 “전(錢)”을 사용하고 있었다.²⁷⁾ 화폐의 통용은 상품교환을 전제로 하며, 그 교환은 잉여생산물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공업인 중에는 많은 노예를 공업생산에 사역하였다. 당시 노예노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업 분야를 보면 무기제작, 피혁, 금속기구류의 제작, 각종 토기, 기와(瓦塊)의 제조, 견직물의 제조, 성곽, 사원의 건축과 토목사업, 분묘의 축조, 각종마구(馬具), 농공구, 도검, 갑옷과 투구(甲冑) 등의 제작을 들 수 있다.²⁸⁾

부족경제시대(部族經濟時代)에는 각종 금속기의 제작기술이 발달하였고, 정복사업에 따라 병기, 농기구 등이 많이 제작되었다.

(2) 백 제

백제는 고구려계통의 부여족의 하나로서 한강하류에 남하한 집단이었다.

27) 白南雲, 『朝鮮社會 經濟史』, 1933, 169쪽. 『傍頓錢出』(그 옆에 돈과 비단을 가지런히 놓는다).

28) 高大民族文化研究所, 『韓國文化史大集』(II), 1965, 12, 30. 989쪽.

백제의 인구는 신라와 대략 동일한 듯 한 약 350만명으로 추정된다.²⁹⁾

백제는 정복국가의 발전과정에서 경지의 확대와 농업생산³⁰⁾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백제의 영역을 보면 북쪽은 패하(渾河, 禮城江), 동쪽은 주양(走壤, 春川), 서쪽은 대해(大海), 남쪽은 웅천(熊川, 安域川) 까지 이로게 된 듯 하다.

당시 충북지방은 상당현(上黨縣 : 清州), 문의현(文義縣), 외인현(懷仁縣)이 백제의 영토소유(領有)가 된 것 같다.

백제는 동성왕(東城王, 479~500년) 때에 북진기지로서 삼년산성(三年山城 : 報恩), 굴산산성(窟山山城 : 青山)을 축조하였고, 신라는 영북(嶺北)의 서원(西原 : 清州), 관산(管山 : 沃川), 모산(母山 : 鎮川) 등의 요지를 획득하였다.³¹⁾

정복전쟁이 활발하여지니 충북지방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각 축장이 되었다.

백제의 생산조직은 노예노동에 의존한 생산조직의 발전 형태와 대응하는 경제생활의 내용도 계급적으로 질서를 유지하였을 것이다. 의복제는 대략 고구려와 비슷하나 의복제에 의해 명주(綢), 비단(錦羅), 금(金), 은(銀), 피혁(皮革), 염색(染色) 기타 생산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백제의 공업은 직물, 금속, 피혁, 목공무기 그리고 도공업 등을 들 수 있는데, 당시 생산조직의 일반적인 특질로 보아 주요한 공업생산물은 일반민중과 노예의 손을 거친 것이다.

직물생산의 기원은 매우 오래되어 서기 20년(溫祚王 38년) 3월에 관

29) 國部 5郡(各郡에 守衛兵 500名씩 등), 全國을 37郡(各郡에 700名以上~1,200名의 常備軍을 두었고, 이들의 兵器는 활(弓), 화살(矢), 칼(刀), 창(矛) : 長矛), 철(鐵), 갑옷(鎧), 도끼(鍔) 등 200種 76萬具임.

30) 조(栗) = 벼, 피(稗), 옥수수(蜀黍), 보리(麥), 콩(大豆), 팽(小豆) 등은 先史時代부터 재배되었음.

31) 忠淸北道誌 編纂委員會, 『忠淸北道誌』, 1975. 8. 15, 47쪽.

리를 파견하여 농사와 양잠을 권장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²⁾ 즉 양잠도 장려했으므로 견직물도 일찍부터 생산되었을 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고급직물³³⁾에 따라 염색술, 표백술도 상당히 발달하였다.

고급직물과 자색(紫色), 비색(緋色), 흑색(黑色), 청색(青色), 황색(黃色) 등의 염색술, 표백술 등에 의해 당시의 직물공업이 상당히 발전하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³⁴⁾

고대 일본의 직물공업은 오로지 백제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고대의 건축양식에 대해서는 계통적인 문헌이 없으나 단편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 추측해 볼 수 있다.

백제건국이래로 궁궐의 신축(新築), 신묘(神廟), 성책(城柵), 궁전(宮殿), 궁부(宮府)의 증설, 귀족계급의 사치스러운 요구 등에 의해 건축기술이 특별히 발달되어 있었다.

백제의 건축기술은 처음부터 수준이 상당히 높았으며, 특수하게 계급적으로 발달되었다. 그리고 건축노동의 사회적 관계를 보면 목공을 「목수(木手)」라 칭하고, 미장이를 「토수(土手)」라하고, 석공을 「석수(石手)」라하며, 표구사(表具師)를 「도배장이」라 하였다.

백제시대의 지상건물로서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는 익산의 미륵사탑(廢彌勒寺塔, 今存六層), 왕궁평탑(王宮坪塔, 五層塔)과 부여에 있는 5층탑(백제탑)을 들 수 있으며, 모두 기법이 매우 우수함을 확실히 엿볼 수 있다.³⁵⁾

금속공업은 일반적으로 식기류, 농기구, 무기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당시의 유물들이 많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금속공업의 생산기술도 특수하게 발달되었으며 무기, 장식품, 불상

32) 『三國史記』, 卷 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溫祚王 三十八年(A.C. 20) 三月, 發使勸農桑」

33) 織物 : 靑, 錦, 馬羅, 絳 등 高級織物.

34) 白南長 『朝鮮社會經濟史』, 經濟學全集 第六十卷, 改進社, 1933. 9. 9. 286쪽.

35) 古代民族文化研究所, 『韓國文化史大集』(II) : 政治經濟史, 1965, 999~1,000쪽.

등이 가장 발달하였다. 공업분야는 부족경제시대와 정복사업에 따라 종류가 달랐으나 대부분 노비노동에 의해 제작되었다.

백제는 정복국가의 발전과정에 경지확대와 농업생산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다. 백제도 고구려와 같이 생산조직은 노예노동에 의존하여 생산조직 또는 경제생활이 계급적으로 질서를 유지하였을 것이다.

백제의 공업은 직물, 금속, 가죽(法革), 본공(本工), 무기 그리고 도공업(陶工業)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건축기술 수준이 높았고, 도공품(陶工品)은 뛰어난 제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식기구외에 농기구와 무기 및 그 부속품 등에서 기술의 우수성을 엿 볼 수 있다. 도공품(陶工品)으로는 정교한 문양벽돌(文樣磚), 기와(瓦)³⁶⁾, 질그릇(陶器) 등의 양식과 수법도 화려하며 섬세하다. 백제의 도공품은 불교가 들어온 후에 점점 크게 발달되었다.

(3) 신라

신라의 전신은 진한 12개 국가 중 하나인 사로국(斯盧國)이며, 경주 6촌(慶州 6村)³⁷⁾은 신라의 발상지이다. 신라는 진한을 통일하여 4세기 중엽에 세운 나라이다. 6세기 중반경에 이르러서는 한반도 중앙부를 차지하는 일대 강국이 되었다.

당시 영토를 보면 대체로 서부는 지리산에 이르러 백제와 접하고, 서북부는 한강에 이르고, 북부는 덕원(德原)에 닿아 고구려와 접하고, 남동부는 큰 바다에 임하여 왜국과 통해 있었다.

농업의 일반적인 특질에 의하면 농업생산은 노예노동(奴隸勞動)³⁸⁾에

36) 기와에는 파와(巴瓦), 당초와(唐草瓦), 귀와(鬼瓦), 치미(鵝瓦), 평와(平瓦)

37) ① 알산(鴨山) 楊山村 ② 突山 高據村 ③ 茂山 大樹村 ④ 珍산(嘴山) 珍支村 ⑤ 金山 加利村 ⑥ 明活山 高那村 여섯 촌의 촌장들은 모두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38) 土室의 所有地는 宮中奴隸, 賜田과 食品은 貨族私有의 奴隸인 部曲, 寺田은 寺院의 奴隸, 陵墓는 陵墓에 의해 耕作되었다. 農產物의 종류는 五穀(麥, 粟, 穀, 粽, 稻), 木綿, 木麻, 草麻, 胡麻, 荻, 人參 등이 있었고, 農產製造品으로는 酒, 油, 蜂蜜, 糧油 등이 있었다.

의해 경작되었다.

신라의 공업노동에 종사한 노동력³⁹⁾은 농민, 귀화인, 노예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공업제조품을 보면 농민에게 부과된 조세로서 그들의 가내공업품(麻布, 絹, 絲) 등을 수납케 하며, 관영공장에서 공장과 노예 등이 제작한 공업품⁴⁰⁾을 수납하도록 하였다.

각지의 방직업의 기술향상, 도기(陶器)의 제작, 금속주조, 조각 기타 장식품의 제작 등이 일반민중화 하게 되고, 제작품의 질과 양에 있어서도 많은 진보를 보게 되었다.

직물에는 면포, 마포, 저포, 견포 등이 있었으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672년(文武王 12년)에 공물(貞物)로서 마포(麻布) 40승(升) 6필(匹), 30승 60필을 바쳤다고 하니 이는 당대 기술의 최고봉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고급품으로는 조하주(朝霞紬), 대화어아주(大花魚牙紬), 소아어아주(小花魚牙紬), 백첩포(白蠶布), 저삼단(綺衫綷), 금총포(金總布) 등이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말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궁정에 부속된 수공업공장에서 노예들이 생산한 품목들이다.

금속공업에 있어서 그의 중요한 원료는 금, 은, 동, 철의 매장량이 상당히 풍부했으며, 광맥이 지표에 가까워서 그의 채굴에는 비교적 소박한 노동으로도 가능하였다.

관영수공업(官營手工業)에는 전업적인 공장인을 모아 각종 물품을 제작하였는데, 관영수공업장(官營手工業場)을 관리하는 행정부서 중 두드러진 것만을 보아도 그 종류가 다수인 약 22종으로 밝혀지고 있다.⁴¹⁾

39) 農民은 農業에, 奴隸는 工業勞動과 牧畜 기타 雜役에 從事하였으며, 踤化人은 特殊工業과 雜役에 종사하였다.

40) 國家公用에 使用, 王室 및 賴族에 대한 現物支給, 中國 日本에 대한 現貢品 및 文易品.

41) 高人民雄文化研究所, 『韓國文化史大集』(II), 1007~1008等 16種.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 356~360 26種.

신라가 웅비해 갈수록 무기 공업이 팽창했고, 또 불교문화가 번창할 수록 그에 수반되는 건축, 석토 금속 등 전문기술이 발달하였다.

금속공업의 원료를 살펴보면→금(金)의 자연적 상태에 대해 알아보면 고자금(赤子金), 대여고자(大如瓜子), 부금여부편(鮒金如鮒片), 출고여급(出高麗及), 호남(湖南)⁴²⁾이라 하였다. 은(銀)은 그 생산량이 많았고, 품질도 매우 좋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종류는 4종⁴³⁾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동(鋤)은 대단히 견고하고 색깔은 붉어 종(鍾)을 만드는 데도 많이 쓰였다. 동은 면 옛날부터 사용되었다. 진한에서는 철이 생산되어 한(韓), 예맥(漁貊), 왜(倭)는 모두 그것을 쉽게 얻었다.

정복국가시대에 이르러 무기 및 농기구 기타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야금술(冶金術)의 발달에 따라 더욱 대양적으로 표출되었을 것이다.

무기제작에 있어서는 칼(刀), 검(劍), 도끼(斧) 등의 제작법도 신라의 독특한 탁월성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각종 말장식품(馬具), 그릇(陶器)와 기와(瓦博) 등의 제작기술도 신라예술의 정화를 이루고 있다.

이상으로 삼한, 삼국시대를 살펴보았으나 국가별 산업을 이끌어가는 노동인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고시대의 호구수(戶口數)를 작성해 살펴보면 <表 1-1>과 같다.

<表 1-1>에 의하면 전한시대에 낙랑군(樂浪郡)의 전성기엔 25개 현을 영유하였고, 호수(戶數)는 62,812호였다.

현토군(玄菟郡)은 3개현을 영유하였고, 호수는 45,000호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과 인접한 요동군(遼東郡)의 경우는 18개현을 지배하였고, 호수는 56,000호로 나타나고 있다.

42) 『海東緯史』, 권 26, 물산지(物產地)

43) 新羅의 銀, 파사(波斯)의 은, 林邑의 은, 云南의 은(銀)

<表 1-1> 中古時代 戶口數

區分	時代	前韓			三韓			三國		
		樂浪郡	玄菟郡	遼東郡	馬韓	辰韓	弁韓	高句麗	百濟	新羅
戶口	縣	25	3	18						
	戶數	62,812	45,000	56,000					760,000	
	人	406,748	220,000	270,000				3,450,000餘人	3,800,000	450,000
	戶當	6.48	4.98	4.8						
國別	京中戶數							210,508	152,200	178,936
	國				50餘城	12	12			
	大國(戶)				10,000餘戶	5-6	5-6			
	小國(戶)				6-7千戶	6-7	6-7			
	總(戶)數				10餘萬	4-5萬	4-5萬	690,000		

주 : 1) 寶藏王 27년(668년). 5部 76城 4) 百濟亡國當時의 戶數

2), 3) 全盛時 5) 推算人口 (三國總人口 10,700,000餘人)

자료 : 姜鎰秀 著, 「總計要綱」, 青島文化社, 1954. 5. 20, 210~213쪽에 의해 筆者作成.

삼한시대에는 마한은 50여국, 변한은 진한에 속하여 진변(辰邊) 2국(國)이 각각 12개국을 종합하여 관리하였다.

삼국시대 경중호수를 보면 각각 전성기의 호수(戶數)는 고구려 210,508호, 백제 152,200호, 신라 178,936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한시대(前韓時代)의 인구는 호당평균 5인이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추산할 때 고구려는 345만여명, 백제 380만여명, 신라 45만여명 등이다. 백제 760,000여 호수(戶數)는 백제가 멸망할 당시의 총 호수와 거의 비슷한 760,000호로 나타나고 있다.

3) 맷는말

이상에서 고문헌(古文獻)에 의하여 충북지역에 관련을 맺고 있는 명칭의 시원(始原)을 삼국시대까지 소급하였고, 특히 삼한, 삼국을 중심으로 전개해 보았다.

중국사료에 의해서는 과연 삼한이 3세기 후반까지 존재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갖고 있으며, 조선중후기에 사학사상으로 정통론이 등장하면서부터 기자조선(箕子朝鮮)을 계승한 마한을 인식하고 연구

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민족이 궁지를 갖게 된 것은 고대 사적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사적 및 제2자료에 의하여 충북지역 경제활동의 범위를 재확인하여 보았다. 삼한은 총 78국인데 그중 마한은 50여개국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현재 그 위치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대체로 동서남북에 위치한 명칭에 따라 그 범위를 가늠할 수 있고, 충북경제권에 들어온 명칭은 대략 10여개 이내이다.

마한은 광범한 평야, 하천 그리고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발달로 부가 축적됨에 따라 계급문화가 촉진되었다.

외부로부터 유입된 금속문화는 농업생산력을 높였고, 또 수공업 발달을 자극하여 농·공·상업도 발달하였다. 일상생활의 범위가 좁아서 수레·병기(車·騎兵) 등은 없었다.

산업사적 관점에서는 산업형태를 자연채취경제와 생산경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성의 변천에 있어서 1913년까지 18개 군(현)으로 구성되었던 충청북도가 1914년부터 10개의 군으로 축소되었는데, 그 동안(韓~1984년까지)의 변화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식의 틀」을 필요로 하고, 마땅히 그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충북지역 경제발전의 맥락은 삼한·삼국시대의 옛 지명을 뿌리로 하여 문화의 발달사를 체계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인식의 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삼국시대의 산업경제는 3개국 (고구려, 백제, 신라) 공히 산업의 기본은 농업이며, 대부분 자기생산으로 만족하였다.

고구려는 동방제국(東方諸國) 중 강대한 정복국가로 출현하였을 때 문화형태는 중국문명(中國文明)을 수입 또는 인도문명(印度文明)을 가미하여 한반도 고대문명의 일대 집합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문화를 쌓아 올린 생산동력은 당시 가장 중요한 노동민중(勞動民衆)인 노예의 노동력이었다. 이들의 주산업은 수렵과 목축이다. 금속공예(金屬工藝)

는 무기를 만들 필요에서 일찍 발달하였으며, 석공기술도 크게 발달 불교가 후에 크게 발달되었다.

신라는 4세기 중엽에 세운 나라로 농업생산은 노예노동(奴隸勞動)에 의해 경작되었다. 공업노동에 종사한 노동력은 농민, 귀화인(歸化人), 노예 등이었다.

672년(文武王 12년)에 공물(貢物)을 보아 당시 직물 기술의 최고봉임을 추측할 수 있다. 금속공업 원료도 풍부했다. 특히 신라는 관영수공업(官營手工業) 관장부서가 다수임을 볼 때 그 범위는 광범위하였고, 이로 미루어 볼 때 수공업 생산을 위한 전업적인 각종 장인 기술자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나라가 웅비할수록 무기 공업이 팽창했고, 불교문화가 번창할수록 건축(建築), 석토(石土), 금속(金屬) 전문기술이 발달하였다.

무기제작에서도 신라는 독특한 탁월성을 발휘하고 있어서 신라예술의 정화를 이루고 있었다. 끝으로 중고시대의 호구를 살펴보았다.

특히, 삼한·삼국시대(三韓·三國時代)의 전개과정을 충청북도 지역에 한정(限定)시켜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장 고려시대 충북의 사회경제기반

1. 고려시대 충청북도의 사회경제 개관
2. 고려시대 양광도의 군배치
3. 고려시대 양광도의 생산시원(I)
4. 고려시대 양광도의 생산시원(II)
5. 고려시대의 청주
6. 고려시대의 충주(I)
7. 고려시대의 충주(II)



제2장 고려시대 충북의 사회경제기반

1. 고려시대 충청북도의 사회경제 개관

1) 머리말

한국경제의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경제발전사(近代經濟發展史)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그리고 한국근대경제에 관한 연구도 60년대 이후 부터였고, 해방이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제식민지체제(日帝植民地體制) 내에서의 연구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연구방향에 있어서도 대체로 식민지 체계를 옹호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에 불과했고, 비판도 역시 세계사적인 조류를 거역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식민지 사회로의 발전의 길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구성(社會構成)은 고전적자본주의(古典的資本主義)의 사회구성과는 다르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식민지 체제를 극복할 주체를 밝혀내고, 제국주의의 모순을 비판하는데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경제의 근대화 과정” 중 충북지역경제를 고려시대로 소급하여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능한 선인(先人)들의 경제행위에서 이 지역을 이끌고 갈 주체를 부분적으로 개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여기서 인용된 고전사료는 『고려사(高麗史)』⁴⁴⁾, 『고려사절요(高麗史

44) 『高麗史』는 朝鮮 世宗 때에 鄭麟趾 등 30餘命의 修史官이 王命을 받아서 編纂한 高麗의 正史이다.

그 내용은 司馬遷의 史記를 본 딴 것으로서 世家 46卷, 天文, 百官, 食貨의 志가 39卷, 年表인 表가 2卷 그리고 個人的 列傳이 50卷, 附目錄이 2卷으로 編纂되어 있다.

『高麗史』는 『三國史記』와 아울러 우리나라 2대 正史의 하나로서 高麗時代 研究에 있어 무상의 보전인 것이다.

節要)』⁴⁵⁾ 그리고 『고려도경(高麗圖經)』⁴⁶⁾을 중심으로 하고, 제2의 자료를 더하여 고려시대의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를 발전사적인 측면에서 전개해 보고자 한다.

역사가의 임무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보다 발전된 방향감각에 의해 재구성하는 과정에 있다. 즉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진보하는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진보하는 길로 이끌어 주는 유용하고 적절한 “나침판”이라는 역할이 역사가의 임무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봉건적 전제군주국가로서 475년간 존속되었던 고려사회의 역사적 변천을 개관하면 시기적으로 볼 때 전·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는 태종~예종(太祖~睿宗) 때까지 약 200년간이며, 후기는 인종(仁宗) 때부터 고려 말까지 약 270년간으로 볼 수 있다. 전기는 고려가 크게 부흥하던 시기이며, 왕조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로서 제도와 문물이 정비·발달되었으며, 국가의 세력도 매우 강했던 시기이다. 그리고 후기는 동란시대로 보아 이자겸의 난(李資謙亂), 묘청의 난(妙淸亂) 그리고 정중부의 난(鄭仲夫亂)을 기틀로 하는 무인천하(武人天下)로서 고려의 쇠판기(襄亂期)를 말한다.

고려말경에는 왜적(倭寇) 등의 침입으로 인한 수많은 외환이 연속되었던 때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역사상 고려시대는 중세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고(上古)와 중세(中世)의 중간에 처하여 상하를 연결하는 교량적 구실을 하고 있다.

45) 『高麗史節要』는 文宗 2년(1452년) 2月에 金宗瑞 등이 代表로서 撰進한 高麗史의 紀年體로서 35卷 35冊으로 되어 있다.

46) 『高麗圖經』의 原名은 『宣和奉使高麗圖經』으로 高麗 仁宗 2년(1124년)에 宋나라 使臣으로 고려에 왔던 徐邈(1091~1153년)이란 사람이 用務를 마치고 宋에 踏國하여 高麗에서 보고들은 것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서 宋나라 徽宗에게 바친 책이다. 그 내용은 200여종으로 모두 40卷으로 되어 있다. 그 뒤에 그림은 없어지고 그 해설로 불어 글만이 남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의 조류 속에서 충북지역 경제를 고려시대로 소급하여 그것의 기반적인 틀을 발췌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고려시대 양광도의 관할구역과 연혁

고려 태조가 고구려의 땅에서 일어나 신라에게 항복을 받고, 후백제를 멸망시켜 개경(開京)에 도읍을 건설하고 삼한의 땅을 통일하게 되었다.

태조는 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뒤 940년(庚子)에 이르러서 비로소 여러 주·부·군·현(諸州·府·郡·縣)의 각호(各號)를 고치고, 성종(成宗 : 在任 982~997년)은 또 주·부·군·현 및 관(關), 역(驛), 강(江), 포(浦)의 각호(各號)를 고쳐서 드디어 전국을 나누어 10도(道)로 하고, 12주(州)마다 각기 절도사(節度使)를 두었다. 그 10도는 1. 관내도(關內道), 2. 중원도(中原道), 3. 하남도(河南道), 4. 강남도(江南道), 5. 영남도(嶺南道), 6. 영동도(嶺東道), 7. 산남도(山南道), 8. 해양도(海陽道), 9. 삭방도(朔方道), 10. 견서도(觀西道)이며, 관할아래 주·군은 모두 580 여개가 되어 동국지리(東國地理)의 성대함이 극에 달하였다.

당시 10도 가운데 충북은 중원도(中原道)였으며, 12개주(州) 가운데 2개주(忠州·淸州)였고, 소영주(所營州) 수는 12주, 현(縣)의 수는 42개였다.

현종(顯宗 在任 : 1010~1030년) 초에 절도사(節度使)를 폐지하고 5도 양(五都讓) 75도 안무사(安撫使)를 두었다가 이어 안무사를 파하고, 4대 도호(都護) 8대 목(牧)을 두었다.

이로부터 이후로는 5도 양계로 확정하여 양광도(場廣道),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 교주도(交州道), 서해도(西海道)와 동계(東界), 북계(北界)로 하였다.

총괄하면 4(京) 8목(牧), 15부(府), 129군(郡), 335현(縣), 29진(鎮)이 되 있다. 그 경계는 서북쪽은 당(唐) 아래의 압록강을 한계로 삼고, 동북쪽은 선춘령(先春嶺)을 경계를 삼으니 대체로 서북의 경계(所全)는 고구려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동북쪽은 고구려 보다 컸었다.

이에 개략적으로 정책사료(吏策)에 보이는 연혁에 의거하여 자리지 (地理志)를 살펴보고자 한다.⁴⁷⁾

<圖-1> 高麗五道兩界



고려시대엔 지방행정구획의 개편이 자주 행해져서 마침내 5도 양계, 4도호부, 8목, 15부, 129군, 335현, 29진의 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경기와 충청은 양광도(楊廣道)로서 4郡護(4郡)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며, 8목(牧) 중에는 광주(廣州), 충주(忠州), 청주(淸州)가 속하였고, 3경(京) 중에는 남경(南京 : 지금 서울)이 이에 속하였다.

(1) 양광도(楊廣道)의 연혁

원래 충북은 고구려와 백제의 땅(한강 이북은 고구려의 땅이었고, 이남은 백제 땅으로 나뉘어져 있었음)을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통합하게 된 것이다.

47) 『高麗史』, 卷五十六, 志 卷 第一地理一.

995년(成宗 14년)에 전국을 10개 도(道)로 나누어 양주(楊州)와 광주(廣州) 등의 주·현을 관내도(關內道)에 소속시켰고, 충주와 청주 등의 현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충원도(忠原道)로 하였다. 공주와 운주(運州) 등의 주현(州·縣)은 하남도(河南道)로 하였다가 1106년(睿宗 元年)에 이들 지역을 합하여 양광·충청주도(楊廣忠清州道)로 삼았다.

그러다 1171년(明宗 元年)에 다시 이를 나누어 2도(二道)로 구분하였다가 1314년(忠肅王 元年)에 또 다시 이들 지역을 양광도(楊廣道)로 하였다.

1356년(恭愍王 5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충청도(忠淸道)로 칭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관할구역을 보면 1경(京), 3목(牧), 2부(府), 27군(郡), 78현(縣)을 관할하였다.⁴⁸⁾

(2) 청주목(淸州牧)의 연혁

본래 청주는 백제의 상당현(上黨縣)으로 신라 685년(神文王 5년)에 처음으로 서원소경(西原小京)을 두었고, 경덕왕이 서원경(西原京)으로 격상시켰다가 940년(太祖, 23년)에 이를 고쳐 청주(淸州)라 칭하였다. 983년(成宗 2년)에는 처음으로 12목을 두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청주이다. 995년(成宗 14년)에는 12목에 각각 절도사(節度使)를 두고 호(號)를 전절군(全節軍)이라 하여 중원도(中原道)에 소속시켰다가 1012년(顯宗 3년)에 이를 폐하여 안무사(按撫使)로 하였고, 9년(1010년)에는 다시 이를 정하여 여러 목(牧)으로 삼게 되면서 8목의 하나가 되면서 2군, 7현이 소속되어 1영지사부(1領知事府), 2지사군(2知事郡), 2현령관(2縣令官)을 관할하였다.⁴⁹⁾

3) 충북상징과 정신의 근간

한 지역문화나 국가문화의 창조와 발전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

48) 『高麗史』, 卷五十六, 志 卷第十, 地理一。

49) 『高麗史』, 卷五十六, 志 卷第一, 地理一。

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 이면에는 개혁 및 운동이 따르고, 그 기반에는 『혁명정신』이 있는 법이다. 각국의 정신적 기반에는 『프론티어 정신』, 『이스라엘 정신』, 『일본자본주의의 정신』 및 『한국 정신』 등이 있다. 이들 정신(精神)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기원(起源)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충북을 상징하는 것은 충성스럽고, 애국적이고, 곧은 정신, 즉 “선비 정신”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필자는 정신의 종류를 나열하려는 것이 아니라 충북을 상징하는 선비정신의 기원을 찾아보고자 한다. 물론 보다 소급하여 시원을 밝힐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고려시대에 한정시켜 당시 양광도(楊廣道) 정신의 일부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시기는 대략 14세기 후반으로 본다.

1361년(恭愍王 10년)에 홍건적(紅賊)이 송도(松都)에 들어와 왕이 남쪽을 순회할 때 적(賊)이 선봉을 보내어 양광도의 州郡을 굴복시키고자 하였으나 이르는 곳마다 감히 그 날카로운 위세를 겪지 못하였으나 유일하게 청주의 현인(縣人)만이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먹이고는 그들이 취한 틈을 타서 괴수(魁首) 6명을 참살(斬殺)하니 적이 이로 말미암아 감히 남하하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⁵⁰⁾

이상의 사실은 홍건적(紅巾賊)의 침입이 많은 당시 그 힘을 겪지 못하였으나 현인(縣人)들이 총명을 모아 적이 남하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힘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362년(恭愍王 11년)에 홍건적(紅賊)이 선봉을 보내어 양광도의 주·군을 침탈하여 항복케 하니 수원부(水原府)가 가장 먼저 맞아 항복하였기 때문에 부를 군으로 강등시킨바 있었으나 사람들(郡人)이 재상 김광(宰臣 金鑛)에게 후한 뇌물을 주어 다시 부(府)가 되었다.⁵¹⁾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민족의 침입을 방어하는 현인(縣人)의

50) 『高麗史』, 卷五十六, 志 卷第十, 地理一。

51) 『高麗史』, 卷五十六, 志 卷第十, 地理一。

총명, 그리고 관할구역인 부(府)가 군(郡)으로 강등되자 군은 재상(宰相)에게 후한 뇌물을 주어 다시 부가 되게 하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府) 또는 현인(縣人)이 『우리』라는 의식 속에서 작은 것을 희생하여 큰 것을 살리는 곧은 정신을 오늘날에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신 속에서 이 지역을 관할하는 안찰사(按察使)도 절개를 지켰으므로 그의 맑은 이름과 굳센 절개가 늙어서도 쇠퇴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171년(明宗 元年)에 보경(摶卿)이 첨사부주부(詹事府注簿)로서 소환되어 감찰어사(監察御史)로 옮기고, 좌정 언지제(左正 言知制)에 고하여 관할토록 하였다. 나아가 양광(楊廣), 충청(忠淸) 2개도(二道)의 안찰사(按察使)가 되어 이르는 곳마다 좋은 평가를 받아 병부원외랑(兵部員外郎)으로 옮겼고, 능히 힘든 벼슬(劇冠)을 잘 소화해 냄으로써 안북도호부사(安北都護副使)가 되었으며, 여러 차례 예부시랑 비서감(禮部侍郎 禮書監)을 맡겼음에도 맑은 이름과 굳센 절개가 늙어서도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⁵²⁾

4) 호구집계

고려시대에는 초기 국가이래로 호구조사(戶口調查)를 엄하게 하여 호적의 편성·신고에 관한 제재규정 등이 제도상 잘 되어 있었으나 여러 차례의 전란과 사전(私川)의 증가에 따라 병역(兵役), 부역(賦役) 및 조공(租貢)의 기피 등으로 호구조사가 충실히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려시대의 호구수에 관해서는 현재 그 기록을 찾을 수 없다.⁵³⁾

여기서는 양광도(楊廣道)에 대한 호구 계점(戶口 計點)의 자료를 밝혀보자 한다.

52) 『高麗史』, 卷五十九, 列傳 卷第十一。

53) 朴奎祥, 『人口問題와 人口政策』, 1972, 211~214쪽.

1377년(丁巳) 12월 유만수(柳曼殊)를 동북면(東北面)에, 오수남(吳秀南)을 전라도에, 안익(安翊)을 양광도(楊廣道)에, 남좌시(南佐時)를 강릉도(江陵道)에, 와안덕(王安德)을 서해도(西海道)에, 경보(慶輔)를 제주도(濟州道)에 보내어 호구를 집계(計點)토록 하고, 서북의 사례에 따라 좌우익군(左右翼軍)을 두고 오직 경상도만은 도순간사 배극렴(都巡間使 褒克廉)으로 하여금 맡게 하였는데 뒤에 현부(憲府)가 상소(上疏)하여 이를 망라토록 하였다.⁵⁴⁾

위의 사실은 1377년 말에 호구를 집계(計點)하기 위하여 안익(安翊)을 양고아도(楊廣道)에 보내 호구를 집계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월에는 5부가 지키는 마을(五部衛里)의 호수를 점검하여 가옥이 30칸(間)이면 장정(壯丁) 3명을 내게 하고, 20칸이면 장정 2명을, 13칸이면 장정 1명을 내게 하였고, 9칸 이하에는 종군(從軍)하는 자의 군사도구(軍具)를 내게 하였다.⁵⁵⁾

이상의 자료에 의하면 5부마을(五部衛里)의 호수를 점검하여 가옥의 크기에 따라 장정(壯丁)을 몇몇씩 내게 하였고 가옥이 아주 작은 9칸 이하이면 종군(從軍)을 두고 군구(軍具)를 내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 양광도(楊廣道)의 호구통계는 찾을 수 없지만 호구조사의 시도나 방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맷는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근대화 과정에 대한 연구동향을 일별하여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문제들을 밝혀 보았다. 시대구분에 따라 고려시대를 중세 또는 조선과 동일시하여 근대 전기라고 보는 학자도 더러 있다.

54) 『高麗史』, 卷七十九, 志 卷 第三十三, 食貨二。

55) 『高麗史』, 卷八十一, 志 卷 第三十五, 兵一。

이에 필자는 주어진 자료를 체계화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하여 보았다. 이에 우선 고려시대의 사회변천에 따라 전·후기로 구분하여 개관해 보았고, 우리나라 역사상 상고와 근세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특색을 들어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고려의 생성과 이에 따른 명호의 변천을 밝히고, 현재 충청북도의 소속도(所屬道), 주(州), 목(牧)으로 나누어 그 위치를 밝혀 보았다.

연혁에서는 양광도와 청주의 연혁을 고찰하였고, 그 문화권에서 성장하는 충북 상징정신에 대한 근간을 찾아보았다.

봉건국가에서는 국력이 인구 또는 토지가 기반이 되므로 호구조사(戶口調查)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아직 고려시대 호구수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당시 가옥의 크기(間)에 따라 장정을 내게 하였고, 9間이하일 경우에는 도구(道具)를 내도록 한 것으로 보아 국가재정(租稅 및 賦役) 등도 이러한 호구수 또는 가옥의 크기에 준하여 부과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관직명에 대한 자세한 해설도 첨부하여야 하겠으나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2. 고려시대 양광도의 군 배치

1) 머리말

예나 지금이나 향토(鄉土)의 외부침입은 스스로 동내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힘으로 방어해야 했다. 고려시대는 봉건국가로서 그 존립기반은 토지에 있고, 존립조건은 생산력의 발전, 즉 지역 확대에 있었고 그 수단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전쟁은 봉건 사회경제사(封建社會經濟史)에 있어서 최장기의 국내전쟁이었다.

현재 충청북도는 당시 양광도였으니 양광도에 한정시켜 왜구의 침입과 그에 대한 대비 및 방어를 사실자료에 의하여 밝혀 보려고 한다.

청주는 양광도 중에서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왜구의 침입이 적었다. 따라서 어가(御駕)를 멈추는데 안전한 곳이었다. 또한 토지가 비옥하고 양곡운반(糧穀運搬)이 편리한 요충지였으나 호걸들이 많아 중앙에서는 반란의 우려까지 염려하였다. 삼국시대에는 세 나라의 국경지대였으나 중앙집권 지배체제가 확립된 고려시대에 이 지역의 변화와 왜구침입에 대한 방어 및 그에 관련된 사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그 방어의 일환으로서 전국에 대한 양광도(楊廣道)의 군(軍) 배치 및 성곽(城郭)을 자료에 의하여 밝혀 보려고 한다.

2) 왜침에 대한 자체방어

우리 민족은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 받아 고이 간직해온 우리 삶의 터전이자 생활터전인 고향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곧 고향에서 부름이 있으면 교통의 난해함을 뿐리치고 달려가는 곳이 고향이다. 각 지역마다 자연이 주어진 산천으로 경계를 이루어 그 산하에서 인성을 가꾸어 독특한 문화권을 창조하여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충청북도는 삼국정립 시대는 세 나라의 국경지대요 변경지대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와서는 그 위치가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청주라는 지역명칭은 940년(高麗 太祖 23년)까지 소급하여 비로소 지금 부르는 『청주(淸州)』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다.

『고려사절요』에는 왕이 청주(淸州) 사람 한찬(韓鑑), 총일(聰逸)에게 이르기를, “태봉주(泰封主)가 청주 고을이 토지가 비옥하고 사람들은 호걸(豪傑)이 많으므로, 변란(變亂)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장차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윤전(尹全), 애견(愛堅) 등 80여명의 군인이 모두 죄가 없는 데도 칼을 씌워 끌려가는 도중에 있느니, 경은 빨리 가서 그들을 전리(山里)에 놓아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⁵⁶⁾

이로써 당시에 청주 고을은 토지가 비옥하고, 사람들은 호걸이 많았으며, 또한 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사』 기록에는 병신(丙申)에 감찰사(監察司)가 상언(上諫)하기를 “조용하게 듣건데 임금의 가마(乘輿, 御駕)가 수원(水原)에 행차하여 궁궐(宮闈)을 경영(經營)코자 한다하오나 수원은 좁고 바다와 가까이(濱) 있어 왜구(倭寇)가 염려되오며 맨 처음 홍건적(紅賊)에게 항복(紅服)하였으니 인심을 보장하기 어렵나이다. 그런데 청주는 이미 순행을 준비하였고, 또 삼도(三道)의 요충에 해당되며, 양곡운반에 편리하고, 적이 능히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오니 원컨대 아직 청주에 어가(御駕)를 멈추었다가 서서히 농사의 틈을 기다려 경성(京城)의 도성(道成)를 가려서 이어할 곳으로 삼으소서. 이제 농사일(農務)이 바야흐로 바쁜 시기인데 어찌 난리를 치른 백성을 이용하여 공역(工役)을 일으키오리까” 하거늘 도검의사(都劍議司)로 하여금 이를 의논케 하였다.⁵⁷⁾

1362년(壬寅 11년) 6월에 청주(淸州)는 3도의 요충이 되었고, 곡식을 운반하기 쉽고, 또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행차가 머무르실 곳은 여기 보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또 국가에 적병의 침입이 해마다 연달아 있사온데, 군사가 단합되지 않아서 항상 위급함을 당했을 때에 농촌에 가서 군사를 모으는 것은 백성들을 소란 시킬 뿐 아니라, 또한 창졸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장정

56) 『高麗史節要』, 卷之二, 太祖神聖大王。

57) 『高麗史』, 卷四十, 世家 卷第四十, 慶愍王二。

을 뽑아서 훈련시켜 일이 있을 때에 대비 시키소서"라고 하였다.⁵⁸⁾

이들 두 자료에 의하면 고려시대 청주는 3도의 요충지에 해당되며, 양곡운반에 편리하고, 적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위치로 알려져 있다.

농사일이 바쁜 때는 난리를 치른 백성을 사용하여 공역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적병의 침입이 해마다 있는데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청주이므로 행차가 머물 곳은 여기보다 안전한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안전함을 수원과 비교하여 청주가 더 안전함을 알리고 있다.

적병의 침입에 대항하여 농촌에 가서 군사를 모으는 것은 백성을 힘들게 할뿐 아니라 창출간에 도움도 되지 못하니 장정을 뽑아서 훈련시켜 대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지방의 난과 왜구의 침입이 많을 때마다 안전한 위치가 청주였음을 역사적 사실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1276년(丙子 2년) 8월에 도병마사(都兵馬使)가 아뢰기를 "상주(尙州), 청주(淸州), 해양(海陽)은 진도(珍島)의 적괴(賊魁)의 고향이니 주(州), 현(縣)의 칭호를 강등하여야 할 것이며, 적을 따라 탐라로 들어갔던 자는 금고(禁錮)하여야 하겠습니다"하였는데, 왕이 금고 하는 것만을 허락하였다.⁵⁹⁾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사』에서 보면 8월 갑자(甲子)에 도병마사(都兵馬使)가 적의 고향(賊鄉)이었던 상주(尙州), 청주(淸州), 해양(海陽), 진도(珍島) 등 주(州)의 이름을 강등하고 또 적을 따라 탐라(耽羅)에 들어간 자를 금고(禁錮)토록 청하거늘 왕이 다만 금고만을 허락하였다고⁶⁰⁾ 기록하고 있다.

수원보다도 안전한 곳이 청주라 하였으나 적괴(賊魁)의 고향인 경우는 주현(州縣)의 칭호를 강등한 사실이 있는데, 1276년 8월에 청주는 상주, 해양이 같은 사항으로 강등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사항 이외에

58) 『高麗史節要』, 卷之二十七, 恭愍王二。

59) 『高麗史節要』卷之十九, 忠烈王。

60) 『高麗史』卷之十八, 世家 卷第二十八 忠烈王二。

도 고려시대에는 계급의 구분이 명확하여 다음에 8개류에 속한 자손들은 천거(赴學)함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1045년(靖宗 11년) 4월에는 구별하여 오역(五逆), 오천(五賤), 불충(不忠), 불효(不孝), 향(鄉), 부곡(部曲)⁶¹⁾, 악공(樂工), 잡류(雜類)의 자손은 천거(赴學)함을 허하지 못하게 하였다.⁶²⁾

또한 고려초기에는 왕조의 기초를 나지는 단계이므로 왕이 순행(巡行)할 때 성주(城主)가 항복할 경우에는 한 지역을 녹(祿)으로 내려준 사실이 있었다. 그 성주(城主, 父)에 한하지 않고 장남(長子), 차남, 삼남에게까지도 녹을 내려준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를 『고려사절요』에서 찾아보면 927년(丁亥 10년, 高麗 太祖 10년) 8월에 왕이 강주(康州)를 순행(巡行)할 때 고사갈이성(高思葛伊城)을 지나니 성주(城主) 흥달(興達)이 그 아들을 먼저 보내어 귀순(歸順)하였다. 이에 후백제에서 두었던 성을 지키는 관리들도 또한 다 항복하니 왕이 이를 가상히 여겨 흥달(興達)에게는 청주의 녹(祿)을 내려주고, 그 맏아들 준달(俊達)에게는 진주(珍州)의 녹을, 둘째 아들 응달(雄達)에게는 한수(寒水)의 녹을, 세째 아들 옥달(玉達)에게는 장천(長淺)의 녹을 내려 주고, 또한 전택(田宅)을 내려 주었다.⁶³⁾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은 새로운 왕조성립 시기에 흔히 쓰고 있는 유화정책(有和政策)의 하나라고 보아진다. 이로써 중세 전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3) 생산력발전의 조건은 지역영토 확장

봉건국가의 기초조건은 토지경제이고, 농업생산력의 봉건적 발전은 지역의 확대에 의해서만 수행되었다. 봉건적 토지경제의 특질은 농민

61) 鄉, 部曲은 新羅時代부터 朝鮮初期까지 있었던 特殊地域의 下役行政區域으로 이 鄉, 部曲의 사람들은 一般的의 良民과 달라서 그 身分이 奴隸, 賤民에 類似한 特 殊한 열등계급의 자위에 있었다.

62) 『高麗史』, 卷 七十一, 志卷第二十七, 選舉 一

63) 『高麗史節要』, 卷之二, 太祖神聖大王, 丁亥十年.

을 토지에 긴박에 의한 농업생산의 외부적 수탈에 있고, 이러한 특질의 구유하는 것이 봉건국가의 존립조건이며, 지역의 확장은 생산력 발전의 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봉건국가의 발전성은 반드시 지역의 확대를 약속하게 되는 것이며, 그 강제적인 작용을 담당하는 수단이 바로 전쟁이었다.

고려시대 전쟁은 봉건사회경제사상 최장기간의 국내전쟁이었다. 특히 양광도에는 왜적의 침입이 많았는데, 1360년~1390년 사이에 여러 차례 침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1360년(庚子) 5월에 왜구가 양광도, 평택, 아주(牙州, 아산), 신평(新平, 洪州의 屬縣) 等의 縣에 침입하고 또 용성(龍城, 水泉 屬縣) 등 10여개 현을 불태우니 경성(京城)이 계엄(戒嚴) 하여 전평장사 유익(前平章事 柳濯)으로 하여금 경기병마도통사(京畿 兵馬都統使)를 삼고, 판추밀원사 이춘부(判樞密院事 李春富)로 하여금 동강도병마사(東江都兵馬使)를 삼고, 환조(桓祖 : 李太祖의 父 李子春)를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로서 서강도병마사(西江都兵馬使)를 삼아 동내마을(坊里)의 장정(丁壯)을 징발(徵發)하여 군사로 삼고 또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전쟁을 돋도록 하였던 것으로⁶⁴⁾ 나타나고 있다.

1356년(丙申) 9월 경진(庚辰)에는 사자(使者)를 양광도, 전라도에 보내어 청주사람(淸州人) 및 화척(禾尺), 재주있는 사람(才人)을 징발하여 서북면 수졸(戍卒)에 충당하였다.⁶⁵⁾

1372년(壬子) 7월 기미(己未)에는 왜구가 양광도에 침입하였고⁶⁶⁾ 1379년(己未) 9월에 왜적이 산음(山陰), 진주(晋州), 사주(泗州 : 泗川), 함양(咸陽)에 침입하여 사신(使臣)을 서해(西海), 양광(楊廣) 등의 도에 보내어 수군(水軍)을 뽑아 왜구에 대비케 하였다.⁶⁷⁾

1375년(乙卯) 12월에는 왜구가 양광도의 반해(濱海) 주현(州縣)에 침

64) 『高麗史』, 卷三十九 卷三十九, 世家卷第三十九, 恭愍王二。

65) 『高麗史』, 卷一三四, 列傳第四十七 辛禡二。

66) 『高麗史』, 卷三十九, 世家卷第三十九 恭愍王二。

67) 『高麗史』, 卷四十三, 世家卷第四十三 恭愍王六。

입하자 판전의사사 김사보(判典儀事 金仕寶)를 병마사(兵馬使)로 삼아서 이를 방어하였다.⁶⁸⁾

왜구가 강화(江華)로부터 양광도 빈해(楊廣道 濱海)의 주군을 쳐서 함락시켰다. 처음엔 적선(賊船)이 겨우 22소(艘)였으나 우리 전함(戰艦)을 빼앗은 것이 많아 50수(艘)에 이르니 보는 사람마다 우리 군사로 오인하여 피하지 않았다가 살상된 사람이 가히 헤아릴 수 없었다.⁶⁹⁾

『고려사절요』의 기록에는 1383년(癸亥) 7월에 양광도 원수(元帥) 왕안덕(王安德)이 괴주(槐州)에서 외적을 쳐서 3급을 베었다⁷⁰⁾는 기록이 있다.

1379년(己未) 왜구가 황간(黃澗), 어해(禦海 : 慶尙道 金山地方), 중보(中牟 : 尙州地方), 화령(化寧 : 상주지방), 공성(功城 : 상주지방), 음리(音利 : 상주지방) 등의 현을 불사르고 드디어 상선 2개주(尙善二州)를 불살랐다. 사신(使臣)을 보내어 양광(楊廣)과 서해도(西海道)에서 징병(徵兵)하였다.⁷¹⁾

1390년(庚午) 6월에 왜구가 양광도에 침입하여 을죽(陰竹), 음성(陰城), 안성(安城), 죽주(竹州 : 竹山), 괴주(槐州 : 槐山)에 이르렀으므로 치밀직사사(知密直司事) 윤사덕(尹師德), 자현윤(慈憲尹) 이(李 : 慎靖王 舊諱)(芳果) 밀직부사(密直副使) 유용생(柳龍生), 김용초(金用超), 의덕부윤(懿德府尹) 곽충부(郭忠輔)를 보내어 이를 잡게 하니 적을 영주(寧州 : 天安)의 길이 높은 산 아래에서 만나 적 100餘級을 베고 포로(捕虜)가 된 남·여와 두필(頭匹 : 牛馬)을 취하여 돌아왔다.⁷²⁾

1389년(己卯) 9월 경신(庚申)에는 왜구가 진(鎮 : 舒川)으로 부터 내려와 양광(楊廣), 경상(慶尙), 전라(全羅)지역의 땅을 횡행하며 도읍을 불태우고 백성들의 재산을 노략질하고 죽여 3도가 떠들썩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사 배언 박수경(元帥 裴彦 朴修敬) 등이 모두 패하여 죽게

68) 『高麗史』, 卷之三, 列傳卷四十六 辛禡一。

69) 『高麗史』, 卷一百二十八, 列傳第三十九。

70) 『高麗史節要』, 卷之三十一, 辛禡一。

71) 『高麗史』, 卷之三十四, 列傳第四十七 辛禡二。

72) 『高麗史』, 卷四十五,世家卷第四十五 慎讓王。

되자 국가가 이것을 걱정하여 향(鄉)과 구원사(九元帥)를 보내려 하였으나 여러 장수들이 두려워 나가려하지 않았다. 이때 향(鄉)은 홀로 떨치고 일어나 그 수하들을 거느리고 인월역(引月驛)에서 전투를 벌여 포획(捕獲)을 남김없이 하니 백성이 편안하게 되었고, 그가 행군을 함에 있어서도 그 때마다 기율(紀律)을 지켜 추호도 범함이 없었으니, 군사는 그의 지엄함(戒嚴)을 두려워하고 백성은 그 덕을 입고 있으니 비록 및 명장(名將)이라도 이에 더할 바 없도다⁷³⁾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에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양광도의 군 일람

고려시대에는 지방 주·현(州·縣)에 외관(外官)이 설치되어 직접 민중을 지배하였다. 중앙으로부터 주·부군현(州·府郡縣)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전국을 일원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⁷⁴⁾ 고려의 주·군(州·郡)은 집권적인 중앙권력의 하부지배기구이며, 주현관(州縣官)은 중앙정부의 명령을 일반 민중에게 전달하는 대행자였다. 주현군(州縣軍), 즉 지방군에 대해 알아보면 고여의 병제(兵制)는 대개 당나라(唐)의 부병제(府兵制)를 모방한 것으로 주·현에 산재한 군대도 모두 6위(六衛)⁷⁵⁾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6위 밖에 따로 주현군(州縣軍)이라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⁷⁶⁾ 당시 6위는 38령(38領)으로 나누며,령(領)에는 각각 1,000명씩을 배치하여 수도의 방위와 국방을 담당케 하였다. 고려시대의 군현제(郡縣制)는 그 명칭보다도 외부관리(外官)의 유무가 문제였다. 지방에 외관(外官)을 파견한 것은 983년(成宗 2년)에 12목(12牧)⁷⁷⁾을 설치한 것이 그 시초이다.

73) 『高麗史』, 第一三七, 列傳 卷第五十 辛禡五.

74) 邊太燮,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湖閣, 1981. 1. 10, 116쪽.

75) 6衛 : 左右衛, 虞虎衛, 興威衛, 金吾衛, 千牛衛, 監門衛

76) 『高麗史』, 卷三十七, 志 兵三.

77) 12牧이 설치된 곳은 楊州, 廣州, 忠州, 清州, 公州, 菲州, 尚州, 全州, 羅州, 异州, 海州, 黃州 등 12개주이다.

이에 12목의 설치로 지금까지 지방토호(鄉豪)에게 맡겨졌던 공무는 직접 외관이 관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에 파견된 관리자(使者)는 그 존재가 불필요하게 되었다.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995년(成宗 14년) 7월에 10도 소관(10道 所管)의 주현(州縣)을 보면 관내도(關內道) 29주 82현, 중원도(中原道) 13주 42현, 하남도(河南道) 11주 34현, 강남도(江南道) 9주 43현, 영남도(嶺南道) 12주 48현, 영동도(嶺東道) 9주 35현, 산남도(山南道) 10주 37현, 해양도(海陽道) 14주 62현, 삵방도(朔方道) 7주 62현, 구서도(舊西道) 14주 4현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10개도 128개주 449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려시대의 군사에 관한 것(軍一覽)을 살펴보면 <表 2-1>과 같다. 즉, 고려시대에 전국은 경기 및 교주, 양광, 경상, 전라, 서해 등 5개의 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을 각 도별로 살펴보면 경상도가 27.2%(13,140人)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현재 충청도는 당시 양광도에 속해 있었으며 전체대비 25.6%(12,336人)의 점유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表 2-1> 高麗州縣軍 一覽表(五道)

(單位 : 人)

道別 區分	交州道	楊廣道	慶尚道	全羅道	西海道	京畿	合計	%
保勝	133	2,582	2,627	1,425	1,399	435	8,601	17.8
精勇	2,224	4,749	4,811	5,021	2,152	797	19,754	41.0
忠	1,527	5,005	5,702	4,618	2,253	777	19,882	41.2
合計	3,884	12,336	13,140	11,064	5,804	2,009	48,237	
%	8.1	25.6	27.2	22.9	12.0	4.2		100.0

자료 : 「高麗史」, 卷八十三, 志卷 第三十七, 页二。

<表 2-2> 高麗時代 楊廣道의 州縣軍 一覽

(單位 : 人)

道別 區分	廣 州 道	南 京 道	安 南 道	仁 州 道	水 州 道	忠 州 牧 道	原 州 道	淸 州 牧 道	公 州 道	洪 州 道	嘉 林 道	合 計	%
保勝	258	133	159	194	175	241	122	538	326	338	98	2,582	20.9
精勇	546	864	292	187	291	357	203	708	553	497	251	4,749	38.5
一品	536	529	282	277	372	520	248	850	527	713	201	5,005	40.6
合計	1,340	1,526	733	608	838	1,118	573	2,096	1,406	1,548	550	12,336	
%	10.9	12.4	5.9	4.9	6.8	9.1	4.6	17.0	11.4	12.5	4.5		100.0

자료 : 『高麗史』, 卷八十三, 志卷第三十七, 兵一

고려시대 양광도의 주현군(州縣軍)을 보면 <表 2-2>와 같이 11개의 도(道)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가장 많은 군을 가지고 있었던 도는 청주목도(淸州牧道)로서 전체대비 17.0%(2,096人)이며, 그 다음은 홍주도(洪州道) 12.5%, 남경도(南京道) 12.4% 그리고 공주도(公州道) 11.4% 등이다. 따라서 당시 양광도의 군 배치 상황을 살펴 볼 때 청주목도(淸州牧道)의 위치가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 우(禦)가 말하기를 8월에 여러 도에 사신을 보내어 군사를 살펴보도록 하였는데, 양광도(楊廣道)는 기병(騎兵) 5천명, 보졸(步卒) 2만명이었고, 경상도(慶尙道)는 기병 3천명, 보졸 2만2천명, 전라도(全羅道)는 기병 2천명, 보졸 8천명, 교주도(交州道)는 기병 4백명, 보졸 4천6백명, 강릉도(江陵道)는 기병 2백명, 보졸 4천7백명, 삭방도(朔方道)는 기병 3천명, 보졸 7천명, 평양도(平壤道)는 기병 6백명, 보졸 9천명, 서해도(西海道)는 기병 5백명, 보졸 4천5백명이었다는 기록이 있다.⁷⁸⁾ 이상의 사료에 의하면 여러 도에 배치되어 있는 군사수는 94,500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병(騎兵) 14,700명, 보졸(步卒) 79,800명이었

78) 『高麗史』, 卷八十一, 志卷第三十五, 兵一.

다. 기병은 양광도가 가장 많은 34%(5,000명)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경상도가 삭방도가 각각 20%(3,000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줄(步卒)은 경상도 27.6%(22,000명)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양광도(楊廣道)가 25.1%(20,000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군사숫자로 미루어 보아 양광도가 전체 군사수 대비 26.1%(25,000명)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1286년(忠烈王 12년) 10월에 사람들이 옛 영토(故土)를 그리워함은 본래의 습속이라 마땅히 동쪽 경계 교주(交州)의 군사로 하여금 쌍성(雙城)을 지키게(鎮戍) 하고, 북쪽 경계 서해(西海)의 군사들로 하여금 압녹강(鴨綠江)을 지키도록 하고, 양광(楊廣), 전라(全羅), 경상도(慶尙道)의 군사들에게는 왜적(倭賊)의 방어를 맡기고, 그 재질(才質)이 용맹한 자를 어느 곳에서나 뽑아 쓰게 하라고 하였다⁷⁹⁾는 기록이 있다.

이로써 1286년경에도 왜적의 침투가 많아서 옛 영토(故土)를 중심으로 지역의 방어를 맡기고 재능 있고 용맹한 사람들을 어느 곳에서나 뽑아 충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362년(恭愍王 11년) 8월에는 사신(使臣)을 여러 도에 보내어 군사를 조달하였는데, 경상도(慶尙道)는 11,000명, 양광·전라도(楊廣·全羅道)는 각각 10,000명, 강릉(江陵), 삭방(朔方), 교주도(交州道)는 합하여 10,000명으로 하고, 서해도(西海道)는 장정(丁壯)을 모두 뽑게 하였다. 공민왕 때에도 사신을 각 도에 보내 군사를 조달하였는데, 이때는 61,000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평양도(平壤道)와 서해도(西海道) 그리고 삭방도(朔方道)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5월에는 양광(楊廣), 전라(全羅), 경상(慶尙) 3도에 왜구가 침입하였다. 왜구들은 연안에 내려 3도를 횡행(橫行)하여 소란스러워지고 그들에게 폐함에 따라 여러 장수들이 한곳에 오래 머무르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옛 명장(名將)들이 진격하여 적을 포획하니 백성들은 편

79) 『高麗史』, 卷八十二, 志卷第十六, 兵二.

안하게 되었고, 군사들 또한 백성들을 괴롭힘이 없었으니 군사의 위엄으로 옛 명장(名將)들의 위용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양광도(楊廣道)에 한정하여 자료로써 밝혀진 사실이나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의 중앙권력은 지방관을 파견하여 일원적인 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고려의 병사제도(兵制)는 당나라(唐)의 부병제(府兵制)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방관리(外官)의 파견은 983년(成宗 2년)부터 12개 목(牧)의 설치가 그 시초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사와 관련하여 고려시대 군일람(軍一覽)을 경기 및 5개의 도별로 분석해 보아도 양광도는 경상도(27.2%) 다음인 25.6%를 차지하고 있다. 고려시대 전국은 11개의 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청주목도(淸州牧道)의 군사비중은 17.0%이며, 그 다음이 홍주도(洪州道)와 남경도(南京道)가 각각 12.4%, 1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러 도에 사신을 보내어 군사를 점검한 결과, 양광도에 가장 많은 기병(騎兵), 그리고 보졸(步卒)은 경상도 다음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옛 영토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습관으로 남아있어서 각 도별로 왜적을 방어토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도 경성(京城)의 계엄(戒嚴) 때에는 각사(名司)별로 휴가(休暇)차 귀향한 사람들을 정집하고 불응 때는 그 재산을 몰수(籍沒)하였다. 또 군역(軍役)을 대행한 자도 있었고, 불벌정복에 숨어 살고 있는 자는 군법으로 처리하였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적과의 전쟁이 치열할 때 경성(京城)은 더욱 경계를 하고 이에 양가(良家 : 일반백성의 집)의 자제를 나오도록 하였고, 여러 원사(元帥)의 종사자와 각사(名司)의 휴가(休暇: 謄告)로 귀향한 자들을 불러들여 경성으로 오게 하고 불응하는 자는 그 집을 몰수하게 하였다⁸⁰⁾는 기록이 남아있다.

한편, 1388(戊辰) 5월의 기록에 의하면 전라도 접경사 유양(接廉使

80) 『高麗史』, 卷八十一, 志卷第三十五, 兵一

柳亮)을 전라도와 양광도에 보내는데 무릇 병(病)을 빌미로 북정(北征)에 나가지 않고 자체와 노예로 하여금 대행한 자를 모두 직접 찾아내도록 하여 왜적을 방어도록 하고 그 숨어 지내는 자는 군법으로써 처단하여 그 재산을 몰수도록 하였다.⁸¹⁾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같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군 입대를 회피하고 어떻게든 빠져 나가려고 상식수준 이하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내용책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다.

5) 맷는말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사료를 통해 청주의 역사를 940년까지 소급하여 살펴 볼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청주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호걸들이 많아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쓴 때도 있었다. 또한 청주는 3도의 요충지로서 양곡운반이 편리하고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적이 가까이하지 못한 곳으로 임금이 머물 곳으로 청주보다 안전한 곳은 없었던 듯하다. 그리고 국가에 적병의 침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이 단합하지 않았고, 위급한 시기에 농촌에서 군사들을 모으는 것은 백성들을 소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지 못한 일이 되므로 장정(壯丁)을 모아 훈련시켜 대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리고 왕이 지방 순행할 시에 성주(城主)가 귀순을 하면 그 대가로 녹(祿)을 내려준 일이 있었고, 그 대상은 귀순자 자식에게까지 혜택을 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봉건국가의 존립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히 생산력 발전의 조건은 지역을 확대하는 일이고, 그 수단은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왜적들이 침입하여 현(縣)을 불태운 일들이 많았었으며, 마을 동네의 장정(壯丁)을 불러들여 군사로 삼고 지휘관을 도와 전쟁에 협

81) 『高麗史』, 卷一三七, 列傳卷第五十, 幸禪五.

조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서북면(西北面)을 지키는 군졸로 충당했고 수군(水軍)을 뽑아 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과정에서 빼았긴 전함에 대한 식별의 오인으로 살상자가 많이 생겨난 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면 승리한 때도 있지만, 사전에 그 대비책으로 징병을 통해 군사를 조달하는 일은 자칫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므로 장정을 징집하여 대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군역(軍役)을 회피하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징벌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3. 고려시대 양광도의 생산시원(I)

1) 머리말

고려시대를 전·후기로 구분하여 볼 때, 전기에는 문신 귀족(文臣貴族)들의 전성기로 고려문화가 절정에 이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기에는 크고 작은 무수한 내우외환(内憂外患)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문화의 발전이 정체되었다.

그러한 와중에도 열렬한 신앙심과 애국정신의 발로로 결실을 맺게 된 거창한 대장경 조판사업(大藏經 組版事業)이나 금속활자(金屬活字)의 발명 등은 고려인(高麗人)의 독창력이 마비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인간이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선행적 조건은 생산이라고 본다면, 고려시대 양광도의 생산시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에 그 뿌리를 다음의 3가지로 한정시켜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한다. 즉, 수공업과 주민의 의무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 내용은 목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광도(楊廣道) 수공업의 뿌리가 되었던 처(處), 장(莊) 그리고 소(所)와 부곡(部曲)을 지역별로 나누어 그 윤곽을 밝혀 보고자 한다. 그리고 생산의 한 형태로 승려(僧徒)들이 징발되어 전함(戰艦)을 만들고, 이 지역의 생산물로 진상하는 특산물, 즉 공물(貢物)과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역(賦役) 및 염호(塙戶)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것을 운반하는데 육운(陸運)보다 해운(海運)의 비중을 중시하였고, 해상운반에서 나타나는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양광도(楊廣道 : 충청도)에서는 고려시대에 운하의 건설을 꿈꾸었던 일이 있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고려시대 지배계급들이 백성을 위해 행하였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굽주렸던 백성의 진휼(賑恤)과 의창(義倉)을 들어 그 당시 주민들의 보호대책을 밝혀 보고자 한다.

2) 양광도 수공업의 뿌리

수공업의 원천을 밝히자면 중국 역사 속에서 부곡(部曲)의 유래(由來)를 찾아 그 시발점을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고려시대에 양광도(楊廣道) 내에 존재하였던 장(莊), 처(處) 그리고 소(所), 부곡(部曲) 등을 밝혀 대체적인 윤곽을 밝혀 보려고 한다.

처(處)는 원래 특수부락으로서 왕실(王室), 왕족(王族)의 궁전이나 사원(寺院)에 소속되어 있었고, 왕실재정(王室財政)을 담당하는 요물고(料物庫)에 속한 일종의 장원(莊園)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 고종(高宗)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장(莊)과 함께 소유주인 왕실에 대하여 조세(租稅), 공부(貢賦) 기타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처(處)의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고려시대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고려말기 전제개혁(田制改革) 당시에 폐지되어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현실적인 처(處)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 지역들은 주(州), 부(府), 군(郡), 현(縣)에 편입되었다. 또한 이 처(處)는 지방제도의 일환으로 장(莊)과 함께 주(州), 부(府), 군(郡), 현(縣), 진(津), 향(鄉), 소(所), 부곡(部曲) 등과 병기되어 있었고, 일련의 공통성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고 있었으며, 국가행정으로는 관리(吏)가 배치되어 있었다.

고려시대 처(處), 장(莊)을 충청도(忠淸道)에 한정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2-3>와 같이 고려시대 충청도에 위치한 장(莊)은 2개(전국은 11개), 처(處)는 9개(전국은 30개)로 나타나고 있다.

장(莊)에는 단양군 매포장(梅浦莊), 예산현 화물장(禮山縣 化物莊)이 있고, 처(處)는 충주목(忠州牧)에 4개, 괴산군(槐山郡)에 2개, 제천현(堤川縣)에 1개, 임천현(林川縣)에 1개, 전의현(全義縣)에 1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에 처(處) 13개, 충청 9개, 전라 2개, 황해 3개, 강

원 3개로 모두 9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莊)은 경기 6개, 충청 2개, 경상 1개, 황해 1개, 강원 1개이다.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충청북도에 속하는 처(處)의 숫자는 7개이고, 장(莊)은 1개 뿐이다.⁸²⁾

지방에 따라 금, 은, 동, 철, 소금 등을 생산하는 고장도 있었고, 또 자기(磁器), 금은동기(金銀銅器), 죽기(竹器), 나전칠기(螺鈿漆器), 종이(紙物) 등을 제조하는 공장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특산지(特產地)를 ‘소(所)’라고 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물건은 역시 공물(貢物)로 나라에 바치기도 하고 또는 상품으로서 좌상(座商), 행상(行商), 해상(海商)에 의하여 매개되기도 하였다.⁸³⁾

소(所)는 신라의 부곡(部曲)에서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특산물의 생산자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소(所), 부곡(部曲)은 신라시대부터 발전하여 조선시대까지 존재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에 이르러 각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고, 일반 농민수공업자와 구분되는 특정물을 생산하는 곳을 “소(所)”라고 하였다.

82) 旗田鐵 著, 『朝鮮末中世社會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76. 80~81쪽.

83) 李丙壽, 『韓國史』, 中世篇, 乙酉文化社, 1961. 730쪽.

<表 2-3> 高麗時代 忠淸道의 莊處

朝鮮時代 州, 府, 郡, 縣	高麗時代 莊, 處의 所在	處	莊	位置	備考
忠 州 牧	忠州牧	上麥谷		州西北 45	
"	"	上麥谷			
"	"	淵香		州西 90	
"	"	大島谷		州西 90	
槐 山 郡	槐山(忠州屬) 監務	世千			
"	"	沙良諸		郡西 20	
堤 川 縣	堤川(原州屬) 監務	山尺		縣西 41	
丹 陽 縣	丹山縣(原州 忠州屬) 監務		梅浦	郡北 25	貢北頭(勝覽)
林 川 縣	林縣(林州)	今勿村		郡東 20	豆毛谷里
全 義 縣	全義縣(忠州屬) 監務	加乙井		縣北 5	
禮 山 縣	禮山縣(大安府屬) 監務		化物	縣西 22	立岩林
計		9	2		
全 國 計		30	11		

자료 : 1. 旗田巍 著,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76. 4. 30.

2. 『歷史學研究』, 246号, 1960. 10.

소(所)는 국가의 요구에 응하는 별공수납 대상지였으며, 여기에서 특화된 전업적인 수공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所)는 지리적 조건에 따라 특산물 생산지역을 국가가 선정한 것으로서 행정단위로는 특수 지역을 이루고 있었다.

소(所)의 주민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별공(別貢)인 특산물 공급을 부담하고, 잔여 상품처리는 자기 경영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⁸⁴⁾에 의하면 15개에 달하는 소(所)가 있어서 각각의 농민들 생산물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물건을

84) 『新增東國與地勝覽』, 卷之七 事覽 7, 23, 驪州牧, 金所, 銀所, 銅所, 鐵所, 絲所, 紹所, 瓦所, 炭所, 鹽所, 糜所, 蕉所, 磁器所, 魚染所, 壺所.

공급하였다. 그리고 금장(金匠), 은장(銀匠), 응장(玉匠) 경석장(經錫匠), 목수(木手), 석수(石手), 소목장(小木匠), 대정(大丁), 모의장(毛衣匠), 주자장(鑄字匠), 숙수장(熟手匠), 각수장(刻手匠), 칠장(漆匠) 등은 모두 지금까지도 통용되고 있는 장인들이다.

소(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수공업품(특산품) 및 그 원료를 생산하는 특수지역임에는 틀림없다. 또 향(鄉), 소(所), 부곡(部曲)의 사람들은 특수한 노동계급의 지위에 있었다.⁸⁵⁾

<表 2-4> 5個 地域別 所, 部曲

所, 部曲 地域	部曲				所		外工匠	
	南道	北道	小計	%	개소	%	개소	%
京畿	24		24	5.3	7	2.4	152	5.2
湖西	46	30	76	16.7	71	24.7	622	21.4
湖南	82	23	105	23.1	126	43.8	778	26.8
嶺南	80	160	240	52.7	50	17.3	1,132	38.9
關東	10		10	2.2	34	11.8	224	7.7
合計	455		455	100.0	288	100.0	2,908	100.0

- 자료 : 1. 『經國大典』, 卷之6, 工典, 外工高條.
 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6~卷之46, 古跡條.
 3. 『世宗莊憲大王實錄』, 卷148~卷151, 地理志

고려시대의 수공업은 농업과 결합상태 하에서 수공업이 농업을 보충할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주로 봉건귀족(封建貴族)의 생활양식의 발전과 더불어 군사적 필요가 증진됨에 따라 수공업 생산기술도 자극되어 발전되었다.

85) 『高麗史』, 卷上.

3) 지역별 소, 부곡 및 외공장

지역별로, 5개 지역에 나뉘어 소속되어 있었던 소(所)는 모두 288개, 부곡(部曲)은 455개, 외공장(外工匠)은 2,928명이다.

<表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호남지역에 소(所), 부곡(部曲)이 가장 많다.

호서지역(河西地域)을 보면 소가 71개, 부곡 76개(충남 46, 충북 30)이며, 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공주(8名), 홍주(6名)이다.

부곡(部曲)은 공주(7名), 충주, 온양이 각각 6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서산, 홍주, 해미가 각각 4개이고, 소와 부곡이 없는 지역도 11개 지역이⁸⁶⁾ 된다.

4) 승려의 징발과 전함건조

고려 말기에는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재난(禍)이 혹심하여 왜구를 격멸하는데 수전(水戰)과 화공(火攻)을 필요로 했다.

화공(火攻)에는 화약(火藥)과 같은 것이 없다하여 화약제조법(火藥製法)을 알아내기에 고심하였다. 수전(水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함(戰艦)을 소유하고 있어야 했다. 이에 전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려에서 머무르고 있던 중국인을 모집하여 전함을 만들었다.⁸⁷⁾

양광도(楊廣道)에서는 승려(僧徒)들을 징발하여 전함을 건조하였는데, 『고려사』에서 그 내용을 보면 1377년(丁酉) 3월 기록에 왜구가 착량(窄梁)에 침입하고, 또 강화(江華)에 침입하여 경성(京城)이 크게 동요하자 최영(崔榮)⁸⁸⁾을 6도 도통사(六道 都統使)를 삼고, 이희필(李希泌)을 강동 도원수(東江 都元帥)로 삼고, 육인길(陸仁吉), 임견미(林堅美)

86) 槐山, 恩津, 延豐, 底仁, 大川, 唐津, 全義, 新昌, 石城, 鎮岑, 定山.

87) 金岸基 著, 『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1961. 6. 15 921쪽.

88) 崔榮(1316-1388) 고려말기의 명장. 武人으로서 楊廣道 都巡問使의 취하에 있으면서 여려번 왜구를 토벌하여 공을 세웠다. 恭愍王 7년(1358년)에는 楊廣, 全羅道 倦賦體 覆使가 되어 오예포(吾刈浦 長淵)에 침입한 왜구의 배 400척을 격파하다.

昧) 등 11명을 보좌관으로 삼아 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통사 경복홍(都統使 慶復興)의 관리를 받게 하고, 의창군 황상(義昌郡 黃裳)을 서강 도원수(西江 都元帥)로 삼으면서 아태조(我太祖)와 양백연(楊伯淵), 변안렬(邊安烈) 등 10명을 보좌관으로 삼아 경기 도통사 이인임(李仁任)의 관리를 받게 하였으며, 여러 도시(諸都)의 승려(僧徒)를 불러 모아 전함을 만들었는데, 경산(京山)에 300명, 양광도(楊廣道)에 1,000명, 교주(交州), 서해(西海), 평양도(平壤道)에 각각 500명으로 하고 승려들(僧徒)에게 명령을 내리되 “만일 구차하게 피하는 자가 군법으로써 논하라고 하였다.⁸⁹⁾

그리고 1383년(癸亥) 11월의 『고려사』 기록에는 호군 진여의(護軍 陳汝宜)와 총랑 신운수(摠郎 申雲秀), 전판사 송문래(前判事 宋文禮), 전소윤 황성길(前小尹 黃成吉)을 양광(楊廣), 서해(西海), 전라(全羅), 경상도(慶尙道)에 각각 파견하여 전함을 만드는 것을 감독케 하였다.⁹⁰⁾

또 위에 기록된 사료와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보면 3월에 전함을 만드는 승려(僧徒)를 경산(京山 : 京山川寺) 및 각 도에서 징발(徵發)하였는데 양광도(楊廣道)는 1,000명이고, 교주(交州), 서해(西海), 평양도(平壤道)는 각각 500명이며, 경산(京山)은 300명이었는데 명령하기를 “승려(僧徒)로서 만약에 도피하는 자가 있으면 곧 군법으로써 논할 것 이니 각 도에 이첩(移牒)하고, 그 배를 건조하는(造船)하는 장인(匠人) 100명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되 그들의 부인(妻) 등에게도 미치게 하라”고 하였다.⁹¹⁾

이러한 상황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광도(楊廣道) 백성들에게는 더 큰 피해가 가해지고 있었다.

『고려사』의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갑진(甲辰)에 원나라(元)의 선정원(宣政院)이 사람을 보내와 배의 건조를 독촉하였는데, 이때 황태후(皇太后)가 불사(佛寺)를 짓고자 하므로 홍복원(洪福源)의 손자 중희(重

89) 『高麗史』, 卷三三, 列傳 卷第四十六 辛禡 1.

90) 『高麗史』, 卷三五, 列傳 卷第四十八 辛禡 1.

91) 『高麗史』, 卷八十一, 志卷第三十五 兵一.

高)와 중경(重慶) 등이 아뢰기를 『백두산(白頭山)에는 좋은 재목이 많으니 만약 심양군(瀋陽軍) 2,000명을 징발하여 이를 베어 압록강(鴨綠江)에 떠내려 보내고, 고려(高麗)로 하여금 배에 실어 수송케 하면 편리할 것이라.』하니 이에 요양성(遼陽省)의 선사 유현(宣使 劉顯) 등을 보내와 고려(本國)로 하여금 배 100척(艘)를 만들고, 쌀(米) 3,000석을 수송케 하니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었다. 이때 2개 궁(二宮)의 역사(役事)가 한창 일어났고 배를 건조하는 일이 또한 급하니 서해(西海), 교주(交州), 양광(楊廣)의 백성이 더욱 그 폐해를 받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⁹²⁾

5) 양광도의 공물과 부역

공부(工賦 : 稅貢)는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세공으로 국가에 바치는 것인데, 그 구별은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상공(常貢)은 일반 주·현(州·縣)에서 세공으로 공납(公納)하는 것이고, 별공(別貢)은 특수물품으로 토산지(土產地)로 부터 현물을 바치는 것이다. 특히 상공에 있어서는 반드시 특산물의 공납(貢納)에 한하지 않고 평포(平布) 등 화폐의 구실을 하던 물품으로 값을 매겨 대납할 수도 있었다.

각 주·부(州·府) 세공물의 품목과 액수는 1041년(靖宗 7년)에 삼사(三司)의 청에 의하여 정한 것인데, 대체로 쌀(米) 300석, 조(租) 400곡(斛 : 10말의 용량을 말함), 황금(黃金) 10량(兩), 백은(白銀) 2근(斤), 포(布 : 麻布, 粛布) 50필(匹), 백적동(白赤銅) 50근, 철(鐵) 300근, 소금(鹽) 300석, 실면(絲綿) 40근, 유밀(油蜜) 1석(石)이었다.

전라, 경상, 양광의 3개도는 공부(貢賦)의 소출지(所出地)로 국가의 중심(腹心)이 되는 곳이다.⁹³⁾

92) 『高麗史』, 卷三十一 忠宣王。

93) 『高麗史』, 卷一百十八, 列傳 卷第三十一。

고려시대에는 “소”(所)⁹⁴⁾가 있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산물을 공납하였던 것이다.

당시 공물(상공, 별공)의 종류를 보면 대체로 쌀(米), 조(租), 금(金), 은(銀), 백동(白銅), 적동(赤銅), 철(鐵), 피혁(皮革), 근각(筋角 : 牛), 사면(絲綿), 면유(綿紬), 마포(麻布), 저포(苧布), 유(油), 봉밀(蜂蜜), 소금(鹽), 과실(果實), 생강(生薑), 칠(漆), 도자기(陶磁器), 종이(紙), 붓(筆), 먹(墨), 숫(炭), 어류(魚類), 콩잎(棗) 등을 들 수 있다.

공부제(貢賦制)는 조세와 함께 고려말기에는 문란해져서 각종 잡공(雜貢)이 부가적으로 생겨나 경제적인 파문을 촉진시켰다.

부역(賦役 : 摻役)은 나이 16세면 ‘정’(丁)이라 하여 국역(國役)에 복무하고 60세가 되면 ‘노’(老)라고 하여 국역을 면하게 하는 것이었다.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양광도에서는 역사(役事) 또는 수성(修城)에 징발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례로 1313년 1월 기미(己未)의 기록에 의하면 양광, 전라, 서해 3개도의 정부(丁夫) 500명을 징발하여 정경관(廷慶官)의 역사(役事)에 나가도록 하였고, 불상(佛像)을 민천사(旻天寺)에서 주조(鑄造)토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⁹⁵⁾

1388년(戊辰) 3월의 기록에 의하면, 전라, 경상 2개도는 왜구의 소굴(巢穴)이 되었고, 동서북쪽은 위험한 지역이 될까 걱정이며, 경기, 교주(交州), 양광(楊廣) 3개도는 수성(修城)하는 일에 분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서해(西海), 평양(平壤) 2개도는 서쪽의 방어를 맡으면서 게다가 징병까지 하니 8도(八道)가 떠들썩하게 되어 백성은 농사일을 하지 못해 대내외(中外)로 원망이 인임(仁任)과 임견미(林堅昧), 염홍방(廉興邦) 때보다도 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⁹⁶⁾

94) 金所, 銀所, 銅所, 鐵所, 絲所, 紬所, 紙所, 瓦所, 帛所, 鹽所, 黑所, 蕤所, 資器所, 魚梁所, 菴所의 稅別이 있다.

95) 『高麗史』, 卷三十一, 世家 卷第三十四, 忠宣王二

96) 『高麗史』, 卷三十七, 列傳 卷第五十一, 辛禡五

4. 고려시대 양광도의 생산시원(II)

1) 250리 해로의 구상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에 있어서는 육운(陸運)을 통한 다양한 화물운송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육상운송보다도 수운(水運)을 이용하여 다양한 화물을 운송하였었다. 따라서 당시 현물세(現物稅)로 징수한 물품을 선박(船舶)에 의하여 운송하려 하니 위험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양광도(楊廣道)에도 약 400리 해로(海路)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운하건설(運河建設)의 꿈이 짹트고 있었고, 또 실천에 옮겼으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강(康)이 건의(獻議)하기를 “양광도(楊廣道)의 태안(泰安), 서주(瑞州) 땅 경계에 탄포(炭浦)가 있는데, 남쪽으로 흘러 흥인교(興仁橋)에 이르기까지 180여리이고, 창포(倉浦)는 북쪽으로부터 흘러 순제성(順堤城) 밑에 이르기까지 70리인데, 이 두 포구(浦) 사이는 옛적에 개천을 판 곳이 있으니 깊이 판 것이 10여리요, 그 파지 않은 것은 7리에 지나지 않은지라 만약 다파서 해수(海水)로 하여금 유통케 하면 해마다 조운(漕運)이 안흥량(安興梁) 400여리의 험함을 건너지 않았을 것이니 청컨대 7월에 일을 시작하여 8월에 마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장정(丁大)를 보내어 파보니 돌이 물밑에 있고 또 해조(海潮)가 왕내하여 파는 대로 곧 막혀 준공(竣工)하기가 쉽지 않아 이 일을 마침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⁹⁷⁾

2) 양광도의 염호

당시 전국적으로 소금(鹽)이 절대적 생활필수품인 관계로 소금의 생산, 운반, 판매, 소비 등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관리되었을 것으로 본다.

소금은 전기에 도염원(都鹽院)을 설치하여 소금의 전매정책(專賣政策)을 써 오다가 후세에 권력있는 신하(權臣)와 부호(富豪)들이 개인적

97) 『高麗史』, 卷一百十六, 列傳 卷第二十九

으로 염분(鹽盆)을 설치하고 이익을 농단(壟斷)하기 시작하면서 소금정책(鹽政)이 크게 붕괴하였는데, 충선왕(忠宣王) 때에 이르러 다시 이를 국가전매(國家專賣)로 통제하여 각처에 의염창(義鹽倉 : 소금의 저장 및 배급소)을 설치하고 일정한 기일에 백성들에게 배급하였다.

배급대가(配給代價)는 소금 2석에 포(布) 1필, 4석에 은(銀) 1냥, 64석에 은 1근이었다.⁹⁸⁾

충선왕(忠宣王 : 在任 1307~1311년)은 소금을 전매(專賣)함으로써 국가의 수입을 늘리고자 내창(內庫), 상적창(常積倉), 도염원(都鹽院) 및 제궁원(諸宮院),内外寺社의 소유인 염분을 모두 관에 바치게 하고, 소금의 수요자는 의염창에 와서 서로 사도록 하였으며, 군현(郡縣)의 사람들은 모두 본영의 관사(官司)에 포(布)를 바치고 소금을 사도록 하였다.⁹⁹⁾ 그리고 염분을 개인적으로 설치하려는 사람 또는 소금을 개인적으로 무역(貿易)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엄히 다스리도록 하였다.

따라서 모든 도의 군현에서는 백성을 징발하여 염호(鹽戶)로 삼고, 또한 염창(鹽倉)을 경영하도록 함으로써 백성들은 심히 괴롭게 여겼으며, 모든 도의 세입염가(歲入鹽價)는 한해에 포(布) 40,000필이었다.

1309년(忠宣王 6년) 2월에는 전하여 말하기를 “옛날 권염(權鹽)하는 법은 국가적 용도에 대비하려는 것이었다. 本國의 모든 궁원(宮院) 사사(寺社)와 권세가들이 사사로이 염분을 설치하며 그 리익을 독점하고 있으니 국용(國用)을 무엇으로써 넉넉하게 할 것인가. 이제 장차 내창(內庫), 상적창(常積倉), 도염원(都鹽院), 안국사(安國社) 및 모든 궁원(諸宮院)과内外寺社가 소有한 염분을 모두 관에 납입시키고 가격을 은(銀) 1근에 64석, 은(銀) 1냥에 4석, 포(布) 1필에 2석으로 하였는데, 이것을 예로삼아 소금을 쓰는 자로 하여금 모두 의염창(義鹽倉)에 나아가 사도록 하고, 군현(郡縣)의 사람들은 모두 본관(本管)의 관사(官司)에 나아가 포(布)를 바치고 소금을 받도록 하라고 하였다.

98) 李內壽, 『韓國史』, 中世篇, 乙酉文化社 1961, 730쪽

99) 金準基 著, 『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1961. 6. 15. 650쪽

만약 사사로이 염분을 설치하거나 몰래 서로 무역하는 자가 있으면 엄히 죄를 물으라고 하였다.

이에 있어 비로소 군현으로 하여금 백성을 징發하여 염호(鹽戶)로 삼고, 또한 영(營)으로 하여금 염창(鹽倉)을 설치하게 하니 백성들이 이를 매우 괴로워하였다.

양광도는 염분 126에 염호(鹽戶)가 231호요, 경상도는 염분 174에 염호가 195이며, 전라도는 염분 126에 염호가 220이다. 평양도(平壤道)는 염분 98에 염호가 122이고, 강릉도(江陵道)는 염분 43에 염호가 75였으며, 서해도(西海道)는 염분, 염호(鹽盆 鹽戶)가 모두 49로 여러 도에서 염가포(鹽價布)가 매년(每歲) 40,000필이 납입되었다.¹⁰⁰⁾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양광도에는 전라도에 비슷한 염분(鹽盆)과 염호(鹽戶)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3) 가민진홀

태조(太祖)로부터 역대의 군주(君主)는 대체로 농업을 국가의 큰 근본(大本)으로 삼아 그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써 왔으며, 특히 성종(成宗)은 적극적인 권농책(勸農策)을 시행하여 국력과 민력을 북돋았다.¹⁰¹⁾

태조는 그의 즉위로부터 백성 다스리시는데 민치(民治)에 힘을 기울여 일반인들의 생활안전을 꾀하였고 심곡사(審穀使)를 두어 양곡의 집적과 결핍 상황을 조사하여 가뭄(水旱)·기근(饑饉)에 식량을 조절케 하였으며 흑창(黑倉)을 두어 궁핍한 백성들을 진휼하였다.¹⁰²⁾

1348년(戊子년) 신미에 사자들을 보내어 서도와 양광도의 기근을 진휼하였다.¹⁰³⁾

1318(忠肅王 5年) 5월에 하교하기를 ‘여러 도의 궁한 백성들이 만약 식량이 없다고 호소하거든 안찰염장관(按察鹽場官)은 창고(倉庫)를 열

100) 『高麗史』, 卷七十九, 志卷 第三十二, 食貨 1.

101) 金庠基 著, 『高麗時代史』(新編), 서울大學校出版部, 1986. 3. 20. 54쪽

102) 『高麗史節要』, 卷 1

103) 『高麗史』, 卷三十七, 世家 卷第三十七, 忠穆王

어 나누어주도록 하고, 가을을 기다려 그 곡식들을 상환케 하라'고 하였다.¹⁰⁴⁾

1348년(忠穆王 4년) 2월에 사신(使臣)을 보내어 서해, 양평 2개도의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고 진고도감(賑消都監)을 설치하여 왕의 어선(御膳)을 감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고, 유비창(有備倉)의 쌀(米) 500석을 내어 진소도감(賑消都監)으로 하여금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베풀게 하였으며, 또 전라도(全羅道) 창미(倉米) 2,000석을 내어 굶주린 백성을 진휼(賑恤)하였다.¹⁰⁵⁾

12(도)徒¹⁰⁶⁾에 양곡을 쌓아둘 수 없으므로 도관(徒官)을 여러 도에 보내어 포(布)를 팔아 쌀(米)을 사들이는 것으로써 규례로 삼으려 하였다. 재추(宰樞)는 그 때 마침 해조(海漕 : 海運)를 통해 그 포(布)를 취하니, 상승국(尙乘局)¹⁰⁷⁾의 말과 조(馬粟)를 사려하거늘 도관(徒官) 조한경(曹漢卿) 등이 공첩(公牒)을 주며 사사로이 쌀(米)을 양평도(楊廣道)에서 사다가 일이 발각되었다.¹⁰⁸⁾

1388년(戊辰) 8월 여러 도의 안렴사(按廉使)를 고쳐서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하니 양평도에는 정당문학 성석린(政堂文學 成石璘)을, 경상도에는 전평괴윤 장하(前平壞尹 張夏)을, 전라도에는 전밀직부사 최유경(前密直副使 崔有慶)을, 교주·강릉도(交州·江陵道)에는 전밀직상의 김사형(前密直商議 金士衡)을, 서해도(西海道)에는 밀직제학 조운흘(密直提學 趙云訥) 등인데 이들은 모두 대간(臺諫)의 추천으로 쓴 것이다.¹⁰⁹⁾ 그리고 각각 부사 이관(副使 利官)을 천거토록 하고 토전(土山)을 개량(改量)케 하였는데,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1347년(丁亥) 2월 신묘(辛卯)에 이민금(李敏金)을 양평도에, 이지구(李之貞), 김영리(金英利)를 전나도에, 남관민(南官敏), 이배중(李培中)을 경상도에, 박광

104) 『高麗史』, 卷八十, 志卷 第三十四, 食貨 3.

105) 『高麗史』, 卷八十, 志卷 第三十四, 食貨 3.

106) 高麗文宗後開京에 있던 12私學의 生徒를 總稱한 것.

107) 임금의 車駕의 일을 맡은 機關이니 6局의 1에 해당.

108) 『高麗史』, 卷三十九, 世家 卷第三十九, 慎愍王 二.

109) 『高麗史』, 卷一三七, 列傳 卷第五十 辛禡五.

후(朴光厚), 최지우(崔之祐)를 서해도에, 정곤(鄭岡)을 평양(平壤)에, 김군발(金君發)을 강릉에, 곽곤(郭岡)을 교주도(交州道)에 파견하여 양도(量度)케 하고 아울러 안렴존무사(按廉存撫使)를 경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¹¹⁰⁾

또한 1363년(恭愍王 2년) 11월에 전민별감(田民別監)을 양광, 전라, 경상도에 파견하여 의성창(義成倉), 덕천창(德泉倉), 유비창(有備倉)의 밭(田)과 모든 사급전(賜給田) 지역내(標內)에서 함부로 가지고 있는 공사전(公私田)을 파악(推刷)하여 모두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¹¹¹⁾

4) 양광도의 의창

예전부터 있던 제도인 의창(義倉)은 중국(漢·唐)제도에서 비롯하였는데 흥년(凶年)에는 백성들에게 손상(損傷)을 받지 않게 하고, 풍년(豐年)에는 농민들이 손해 보지 않게 하니 진실로 구황(救荒)의 좋은 법(良法)이다.

국초(國初)에 그 뜻을 이어 받아 흑장(黑倉 : 고려 태조가 설치한 빈민구제기관)을 창설하여 설치하였는데, 986년(成宗 5년) 7월에 인구(生齒)는 날로 늘어나는데 쌓아서 저축(儲蓄)한 것은 많지 못하니, 거기에다 쌀 10,000석을 더하고, 이름을 고칠 것이며, 또 여러 주·부(州·府)에 각각 의창(義倉)을 설치코자 하니, 유사(攸司)는 주·부(州·府)의 인구의 다소(多少)와 창고(倉庫)에 저축한 곡식(穀食)의 수량목록(數目)을 점검하여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다.

993년(成宗 12년) 2월에 양경(兩京 : 西京, 南京)과 12목(12牧)에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고¹¹²⁾ 토(布) 32만필로서 쌀 6만4천석을 바꾸어(布5匹에 米 1石), 5천석은 상경(上京 : 南京)에, 5만9천석은 서경(西京) 및 주군창(州郡倉) 15개소에 나누어 보관하고 관리토록 하였다.

110) 『高麗史』, 卷三十七, 世家 卷三十七, 忠穆王

111) 『高麗史』, 卷七十八, 志卷第三十二, 食貨一.

112) 『高麗史』, 卷八十, 志卷第三十四食貨三.

신창 원년(辛昌 元年) 8월의 기록에 따르면 양광도 관찰제사 성석련(道觀祭使 成石璘)이 장계(啓)하기를 『도내 백성들이 가뭄(水旱)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여 종곡(種穀)과 양식(糧食)이 모두 끊어져 구하고(乞絕) 있사오니 금후(今後)로는 청하건대 주군(州郡)에 의창(義倉)을 설치도록 하소서』하니 이를 받아들여 따르도록(聽從) 하였다.¹¹³⁾

그 후 1363년(恭愍 6년) 12월에는 『…국가가 이미 사전(私田)을 혁파(革罷)하여, 이르는 곳마다 모두 축적(蓄積)이 있사오니 원컨대 이제부터 군형(郡縣)에 모두 상평창(常平倉)¹¹⁴⁾을 설치하도록 하되, 그 풍흉감산(豐凶歛散)의 방법은 모두 근일에 도평의사(都評議司)에서 상소한 바에 의거 하소서, 들헌대 양광도(場廣道)에는 이미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였다 하오니 마땅히 각도(各道)로 하여금 이에 의거하여 시행토록 하고 수령(守令)으로서 법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를 단죄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다.¹¹⁵⁾

또한 「국가가 이미 사전(私田)을 개혁하여 이르는 곳마다 모두 축적(蓄積)이 있으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군현에 모두 상평창을 설치하고, 그 풍년과 흥년에 거두고 산매(散賣)하는 법은 가까운 시일에 도평의사(都評議使)가 상소한 바에 의하소서, 가만히 들헌대 양광도는 이미 상평창을 두었다 하오니 마땅히 여러 도로 하여금 이에 의하여 시행케 하시고 수령(守令)으로 법과 같이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이를 벌하소서, 식(食)은 백성에게 하늘이 되고, 곡식은 소로 말미암아 나는 것 이니 이므로 본국이 금살도감(禁殺都監)을 둘은 농사를 중요하게 하고 민생을 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¹¹⁶⁾

113) 『高麗史』, 卷八十, 志卷第三十四食貨 三。

114) 고려시대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으로서 成宗 12년(993년), 南京(개성과 평양)과 12牧(楊州, 慶州, 黃州, 海州, 忠州, 清州, 公州, 全州, 羅州, 昇州, 閔州, 菲州)에 설치하였다. 米穀 6萬4千 섬을 저장해 두고 지방에서는 지방장관이 이를 매매하여 곡가를 조절케 하였다.

115) 『高麗史』, 卷八十, 志卷第三十四, 食貨 三。

116) 『高麗史』, 卷一百十八, 列傳卷第三十一,

5) 맷는말

고려시대 양광도(楊廣道)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전개하였다. 한 부분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논할 수는 없겠으나 시대구분에 의하여,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사료(史料)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면밀히 검토하면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봉건사회(封建社會)에서 근간이 된 생산부문, 즉 수공업(手工業)의 원천(源泉)을 밝힘으로써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농업사회의 장인정신(匠人精神)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처(處), 장(莊), 소(所), 부곡(部曲)을 분석해 보고, 양고아도(楊廣道)에 한정시켜 고찰한 결과 당시에도 지역 간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공납품(貢納品)을 생산, 진상하는 촌락(村落)을 “소”(所)라 하는데, 고려시대 소(所)라는 촌락을 통제, 지배하는 수단으로 소촌락(所村落)을 천민의 신분으로 묶어 버렸다. 그러나 오늘날 다른 시각에서 보면 소(所)는 특수지역으로서 특수한 노동계급(勞動階級)이 거주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또한 5개 지역에서 호서지역(湖西地域)에 소속된 소, 부곡 및 외공장(外工匠)을 함께 살펴보았다.

전라, 경상, 양광 3도는 당시 공부(貢賦)의 소출지(所出地)로 국가의 심장(腹心)이 되는 곳이라 했다. 그리고 공부의 종류를 고찰하였는데, 부역(賦役)으로 징발된 인원이 500名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각 주·군·현(州·郡·縣)의 공물(貢物)을 현물로 징수하여 중앙에 운송하는 데는 수운(水運)이 큰 몫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양광도에서는 당시 400리 해로(海路)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운하건설의 구상이 있었으나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생활필수품인 소금(鹽)에 대한 정책변화 그리고 배급대가(配給代價)를 밝히고, 백성을 징발하여 염호(鹽戶)를 삼아 괴로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양광도에 소금 만드는 곳(鹽盆)은 126 곳에 염호(鹽戶)가 231호나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태조(太祖)부터 역대 군왕은 농업을 국가의 큰 근본으로 삼고 권농 정책을 시행하여 민간의 힘을 북돋고자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근에 식량부족을 막기 위해 흑창(黑倉)을 두고 궁핍한 백성(窮民)을 진휼(賑恤)하였다. 그렇지만 양광도에도 달갑지 않은 기근이 자주 도래하여 관리에 불미스런 일도 있었다.

또한 흉년이든 풍년이든 농민들의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상평창(常平倉), 의창(義倉) 등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광도 도관찰사(都觀察使)가 의창(義倉)설치를 건의(啓)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993년에 양경(남경과 서경)과 12목에 설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양광도에 한정하여 연구를 하였지만 각 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역민들의 경제생활 실태에 대한 연구가 뒤따르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5. 고려시대의 청주

1) 머리말

선운사(禪雲寺) 도솔산 정봉에 올라서면 내려다보이는 낙조(落照) 그리고 서해 바닷물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닷물을 짜지 않게 할 만큼 엄청난 물을 서쪽으로 내려 보내는 위대한 강(江 : 漢江 · 錦江)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2개의 강에 인접된 도는 충청 남·북도, 전라북도,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가 있다. 특히 충청북(남)도는 두 강에 안겨있어서 어쩌면 행운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큰 산맥의 조그마한 실개천에서 비롯되었고, 그 힘은 약하기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개천들이 한데 모여 태산준령을 가르고 평원을 가르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기운을 갖는 사상(思想)의 시원(始原)은 강의 발원지와 같이 빈약하기 짝이 없지만 이것들이 한데 모여 체계화하면 세상을 진동시키고 역사를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새로운 시대에 충청북도에 필요한 추진력을 밝히기 위하여 충북 지역경제의 뿌리를 찾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고려시대의 양광도(楊廣道)를 개괄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당시 지역경제의 중심권역이 되었던 청주, 충주 그리고 공주를 권역별로 고찰해 보려고 한다.

먼저 청주권역에서는 중세전통사회(中世傳統社會)에 왕이 청주에 행차하여 이 지역에 펼친 사실들을 밝히고, 청주권역에서 관(官)에 납입한 토공(土貢)이 무엇인가를 찾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연력, 즉 물(水), 지진(地震), 눈(雪), 무지개, 천둥번개 등이 이 지역에 미친 재해(災害)를 살펴보고, 당시 국교(國敎)라 할 수 있는 불교의 각종 법회(法會)중 연등회(燃燈會) 행사일정(行事日程)이 청주에서 시작된 것을 실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청주지역을 이끌어 온 근본정신(根本精神)을 남긴 관리(官吏)들의 행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왕의 청주행차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어가(御駕)가 청주에서 가까운 보은현(報恩縣)에 와서 배(船) 10소(艘)을 건조(製造)케 하였으며, 919년에는 왕이 친히 성(城)을 쌓았고, 930년에는 나성(羅城)을 쌓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왕이 청주에 행차한 사실은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고전사료를 통해 밝혀 보고자 한다.

경인년(庚寅)에 어가(御駕)가 옥천(沃川)으로 향할 때 물이 범람하자 사이 길을 택하여 보령현(報令 : 報恩)에 이르러 근방의 군에다 명하여 배 10소(10艘)를 만들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신묘년(辛卯)에는 어가(御駕)가 회인(懷仁)에 이르렀고, 임진(壬辰)에 어가가 청주에 이르렀다.

처음 상주(尙州)에 행차하였을 때 뒤따르던 신료(臣僚)들에게 인가(人家)에 임시숙소를 마련하고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주인으로 하여금 피하지 말게 하였더니, 그 부인(妻妾)과 자녀(子女)를 음란하게 간유(亂淫)한 자가 심히 많았던 바, 이에 이르러 청주인(淸州人)은 모두 가족들(率家) 데리고 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¹⁷⁾

『고려사절요』의 기록에는 919년(己卯 2년) 8월에 왕이 청주에 행차하였다. 이 때 청주 사람들이 다른 마음(異心)을 품어 유언(流言)이 자주 일어나므로 왕이 친히 가서 위로하고, 그 곳에 성(城)을 쌓고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다.¹¹⁸⁾ 그리고 930년(庚寅 13년) 8월에는 청주에 행차하여 나성(羅城)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¹¹⁹⁾

또한, 1362년(壬寅 11년) 8월 을유(乙酉) 일에 왕이 상주(尙州)를 떠나 임진(壬辰)일에 청주에 이르렀고,¹²⁰⁾ 1363년(癸卯 12년) 2월 을해(乙亥)일에 청주를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²¹⁾ 그리고 『고려사』 기록

117) 『高麗史』, 卷四十, 世家, 卷四十, 恭愍王 三.

118) 『高麗史節要』, 卷之二, 太祖 神聖王.

119) 『高麗史節要』, 卷之一, 太祖 神聖王.

120) 『高麗史節要』, 卷之二十七, 恭愍王 三.

121) 『高麗史節要』, 卷之二十七, 恭愍王 三.

에는 1363년(癸卯 12년) 봄 1월(春 正月) 임인삭(壬寅朔)에 왕이 청주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¹²²⁾

이상의 고전사료들을 음미해 보면 왕이 청주에 자주 행차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경성(京城 : 王城)을 출발하여 청주를 거쳐 다시 서울에 돌아가는 이정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왕성(王城)→(광주)廣州→비뇌역(鼻腦驛)→장곡역(長谷驛)→인의현(仁義縣)→수다역(水多驛)→나주(羅州)→복룡역(伏龍驛)→고부군(古阜郡)→금구현(金溝縣)→전주(全州 : 7일간 머물음)→여양현(礪陽縣 : 磺山)→공주(公州 : 6일동안 머물음)→청주(淸州)→서울(壽昌宮)

당시 왕성(王城)의 모든 문은 대부분 초창기에 만든 것인데, 선의문(宣義門)은 신하들(使者)이 출입하는 곳이고, 북창문(北昌門)은 신하들이 돌아가는 길이거나 사묘(祠廟)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주 엄숙하게 꾸며져 있는데, 다른 문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한다.

회빈문(會賓門), 장패문(長霸門) 등부터는 그 제도가 대략 같은데… 장패문은 안동부(安東府)로 통하고, 광덕문(光德門)은 정주(正州)로 통하고, 선인문(宣仁門)은 양주(楊州), 전주(全州), 나주(羅州) 등 3개 주로 통하고, 숭인문(崇仁門)은 일본으로 통하고, 안정문(安定門)은 경주(慶州), 광주(廣州), 청주(淸州) 등 3개 주로 통하고, 선기문(宣祺門)은 대금국(大金國)으로 통하고, 북창문(北昌門)은 삼각산(三角山)으로 통하는데, 신탄(薪炭 : 땔나무와 숯), 잣(松子), 포백(布帛)이 나는 지방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¹²³⁾ 이상의 자료에 의하면 왕성(王城)의 문은 초창기에 만든 것인데, 그 수가 9개 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청주(淸州)로 통하는 문은 안정문(安定門) 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고려시대 청주의 토공

봉건시대에 노동지대가 발전한 형태가 현물지대인데, 이것이 바로

122) 『高麗史』, 卷四十, 世家 卷四十 恭愍王 三.

123) 『宣和奉使』, 『高麗圖經』, 卷 第三, 外門.

공물(貢物)이다. 공물 중의 하나가 토공(土貢)이다.

『고려사』 기록에는 고려시대에 사신(使臣)을 청주에 보내어 토공(土貢)을 독려(督勵)한 기록을 보면, 사신을 안동(安東), 경주(慶州), 진성주(晋陝州), 상주(尙州), 영암(靈岩), 나주(羅州), 전주(全州), 양광주(楊廣州), 청주(淸州), 충주(忠州) 등 10개 도에 보내어 여러 주(州)들의 토공(土貢)을 독려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⁴⁾

고려왕조는 고려의 10개도에 사신을 보내 토공을 독려하였는데, 당시 양광도, 청주, 충주가 그에 해당되어 토공(土貢)을 생산하였고, 이것 은 노동지대가 현물지대 형태로 변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공물(貢物)은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으로 구분되는데, 청주에는 “설사”(雪刺)이 별공으로 지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기록을 『고려사』를 통해 살펴보면, 이듬해에 왕이 항(沆)의 어머니에게 정안택 주인(靜安宅主)이라는 직분을 부여(贈職)하였고, 항(沆)은 무당을 성 밖으로 내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교정별감(敎定別監)의 통첩(通牒)으로 청주의 설사(雪刺), 안동의 새사(蠶絲), 경산(京山)의 황마포(黃麻布), 해양(海陽)의 백저포(白絹布)와 모든 별공 및 금(金), 홍주(洪州) 등지의 어량선세(魚梁船稅)를 면제해 주고, 또 여러 도의 교정수획원(敎定收獲員)을 불러 돌아오게 하고, 그 임무를 안찰사(按察使)에게 위임하여 백성들의 기내를 반계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¹²⁵⁾

한편, 금속제품으로는 은소(銀所)에서 은(銀)을 채취하여 관에 납입하고, 은그릇(銀器)도 납입하면 돈을 만들어(鑄錢)하여 돌려주어 5승포(5升布)와 함께 쓰도록 하여 공사간(公私間)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였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은을 생산하는 은소(銀所)¹²⁶⁾는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庶民)들의 요역(徭役)을 면제하고 은을 채취하여 관(官)에

124) 『高麗史』, 卷二十二, 世家 卷第十一: 高宗二。

125) 『高麗史』, 卷一百一十九, 列傳 卷第四十一。

126) 銀을 生産하는 所. 고려시대에 貢賦 중에 그 地方의 特產物을 바치는 別貢이 있었는데, 이렇게 特定한 物件을 生産하는 고장을 所라고 하였으니 金所, 銀所, 鐵所, 紙所 등이 그것이다.

납입하도록 하였고, 개인들이 비축하고 있는 은그릇(銀器)도 모두 관에 납입토록 하여 돈으로 만들어(籌錢) 돌려주면서 5승포(5升布)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면 공사간(公私間)에 편리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¹²⁷⁾

4) 청주에 미친 재해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청주에는 옛날부터 물이 솟아올라 인가(人
家)가 180호나 물에 잠기거나 떠돈(漂沒) 일도 있었으며, 여름철 큰비
와 천둥번개로 청주성(淸州城) 안에 물이 불어 동물들이 떠다니고, 가
지에 올라가 생명을 유지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눈(雪)이 많이 내려
깊이가 3척(尺)이나 되었고, 수재(水災)를 입었기 때문에 죄수들이 석
방된 일도 있었다. 또한 청주내성(淸州內城)과 무지개가 인연이 되어
왕이 주(州)에 머물게 되자 재앙을 사라지게 하는 도량(消災道場)으로
치교(致育)¹²⁸⁾한 일도 있었다.¹²⁹⁾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고전을 통해 살펴보면, 1136년(仁宗 14년) 6월
정유 초하루(丁酉朔)에 청주의 평지에 물이 솟아올라 표몰된 인가(人
家)가 180호나 되었다. 그리고 1342년(恭愍王 11년) 10월 계미(癸未)일
에 큰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니 청주성(淸州域) 안에 물이 불어
죽은 뱀이 떠다니는 일이 있었고, 개구리가 나무 가지에 올라갔었으
며, 기후는 여름과 같았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¹³⁰⁾ 또한 1342년(恭
愍王 12년) 2월 갑술(甲戌)일에 청주에 크게 눈이 내려 평지가 깊이 3
척(三尺)이었다고 기록되고 있다.¹³¹⁾ 게다가 『고려사절요』의 기록에는
1390년(庚午 2년) 6월에 청주에 큰 수재(水災)가 있어 이조판서(吏曹判
書) 조온(趙溫)을 청주에 보내어 여러 죄수를 석방하여 안치(安置)하게
하고, 또 오래 비가 내리므로 서울의 죄수 150명을 석방하였다는 기록
이 나타나 있다.¹³²⁾ 또한 1362년(恭愍王 11년) 9월 계해(癸亥)일에 무지

127) 『高麗史』, 卷七十九 卷 第三十三食貨上.

128) 祭祀를 행할 때身心을 깨끗이 하여 비는 것.

129) 『高麗史』, 卷五十三 志卷 第七.

130) 『高麗史』, 卷五十三 志卷 第七.

131) 『高麗史』, 卷五十三 志卷 第七.

개가 동쪽에서 솟아 왕궁의 양쪽끝(王宮兩端)에 낮게 걸쳐 있어 청주 내성(淸州內城)을 넘지 않았다. 이날은 왕이 청주에 계셔서 재앙을 사라지게 하는 도량(消災道場)으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다.¹³³⁾ 한편, 또 다른 기록에는 경오년(庚午年)에 청주에 홍수(洪水)가 나오고, 신미년(辛未年)에는 성내(城市)에서 배를 타게 되는 천재(天災)가 거듭하여 생겨나고 곡식(穀食)이 열매를 맺지 못한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¹³⁴⁾

이상과 같은 사료(史料)에 의하면 청주가 지층이 낮아서 평지에 물이 솟아올라 인가가 180호나 표류되었고, 여름철에 비가 내려 청주성 안에 물이 불어 올랐는가 하면,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려 평지 깊이가 3척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청주의 수재로 인하여 죄수들이 석방된 일도 있으며 비가 너무 오래 내리자 서울에 있는 죄수 150명도 석방한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주에 홍수로 성 안에서 배를 타게 되는 천재가 거듭되었고, 곡식을 등품하지 못하였던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 청주감옥(淸州獄)에 갇힌 죄인들을 고문하다 별안간에 천둥번개(雷雨)가 일어나 성의 남문(南門), 북문(北門)을 무너뜨리게 되니 수심(水深)이 한길이 넘었으며, 관사(官舍)가 파묻히고, 민가가 거의 없어졌으며, 감옥을 지키던 관리(獄官)는 너무 급하여 나무를 붙잡게 되어 겨우 생명을 건겼다는 것이다. 이때 노인들이 말하기를 청주(州)가 생긴 이후로 아직 수재가 이와 같이 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계된 역사사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이색(李穡), 이임(李琳), 우인렬(禹仁烈), 이인민(李仁敏), 정지(鄭地), 이승인(李崇仁), 권근(權近), 이종학(李種學), 이귀생(李貴生) 등을 청주감옥(淸州獄)에 잡아 가두고, 문하평리 윤처(閔下評里 尹處), 밀직부사 박경(密直副使 朴經), 우사의 이학(右司議

132) 『高麗史節要』, 卷之三十四, 恭讓王二.

133) 『高麗史』, 卷五十三, 志卷 第七.

134) 『高麗史』, 卷一百十七, 列傳 卷第三十.

李擴), 형조좌랑 신효창(刑曹佐郎 申孝昌), 전시(田時)를 보내어 양광도 도찰사(楊廣道 都察使) 류가(柳珂)와 더불어 그들을 국문(鞠問)케 하니, 윤처(尹處) 등이 청주에서 모든 죄수를 국문(鞠問)하였으나 모두 불복하는데 별안간 천둥번개가 크게 일어나 앞내가 돌연 넘쳐서 불어나고, 성(城)의 남문(南門)을 무너뜨리고 바로 북문(北門)을 뚫으니 성 가운데 수십이 한길이 넘어 관사(官舍)가 잠기고 민가가 거의 없어지니 옥관(獄官)이 너무 급하여 수목(樹木)을 불잡고서 겨우 살았다. 이 때 노인들이 이르기를 “청주가 생긴 이후로 아직 수재가 이와 같이 심한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¹³⁵⁾

이외에 지진(地震)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1025년(顯宗 16년) 4월 신미(辛未)일에 영난도(嶺南道), 광평(廣平), 하반(河濱) 등 10개현(10縣)에 지진이 발생하였고, 1032년(壬申) 을해(乙亥)일에 또 이와 같았으며, 7월 정해(丁亥)일에 경상, 상주, 청주, 안동, 밀성(密城)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¹³⁶⁾ 그리고 1035년(丁亥)에 경상, 청주, 안동, 밀성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¹³⁷⁾

이상과 같은 사료기록에 의하면 1032년~1035년 사이에 청주지역에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청주와 연등행사일정

고려 태조(太祖 : 王建)은 불교 힘(佛力)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을 믿고, 불교를 존중하고 스님들을 공경하는(崇佛敬僧)의 정책을 전개하

135) 『高麗史』, 卷一百十五, 列傳 卷第二十八。

136) 『高麗史』, 卷五十五, 志卷 第九. 太祖 11年 6月 甲戌 碧珍郡에 地震, 光宗 22年 12月 壬寅에 地震, 23年 2月 地震, 顯宗 3年 3月 庚午 慶州에 地震, 12月 丁丑 慶州에 地震, 4年 2月 壬午 慶州에 地震, 3月 辛丑 全州에 地震, 11月 丁未에 金州에 地震, 12月 丙戌에 金州, 慶州 2州에 地震, 58月 丙子에 慶州에 地震, 6年 11月 甲申에 慶州에 地震, 11年 11月 癸巳에 漣州에 地震, 14年 5月 乙亥에 金州에 地震, 15年 11月 乙酉에 尙州에 地震, 21年 2月 甲午에 交州 薦嶺 洞山縣에 地震.

137)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編, 『譯註 高麗史』, 世家 卷第五 顯宗二.

였으니 융성(隆盛)하였고, 불교자체보다도 호국사찰(護國寺刹)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불사(佛事)가 역대(歷代)로 빈다하여 각종 법회(法會)가 그치지 않았다. 그 중 연등회(燃燈會)를 청주와 연관시켜 보고자 한다.

연등회(燃燈會)는 고려시대 국가의식의 일종으로 궁전 사방에 등불을 밝힌 다음 국악과 중국악을 울리며 춤과 노래 등으로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며 여러 부처님(諸佛)과 천지신명을 즐겁게 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비는 의식이다.

연등회는 태조(太祖)이래 상원(上元)연등이라 하여 1월 15일을 표준으로 행하다가 1012년(顯宗 2年) 왕이 거란의 침입으로 나주로 피했다가 환경(還京)하는 도중 청주에서 2월 15일에 연등회를 베푼 후부터는 대체로 2월 15일에 행해지게 되었다.

이에 고전기록을 통해 청주지역에서 재음미해 볼 수 있는 사실들을 밝혀 보고자 한다.

1011년(辛亥) 경자(更子)일에 왕이 전주(全州)에 이르러서 7일 동안 머물렀다.¹³⁸⁾ 그러다가 2월 정미(丁未)일에 왕이 전주를 출발하여 무신(戊申)일에 공주(公州)에 이르러 6일 동안 머물렀는데, 절도사(節度使) 김은부(金殷傅)가 만创新发展 시켜 임금의 옷(御衣)을 지어 바쳤다. 그로 인하여 그를 맞아들이니 원성왕후(元成王后)이었다.

정사(丁巳)일에 왕이 청주에 이르렀다. 연등회(燃燈會)를 행궁(行宮)에서 거행하였다. 이후에는 의례히 2월 보름에는 연등회를 거행하였다.

경신(庚申)일에 왕이 청주를 출발하여 정묘(丁卯)일에 서울로 돌아와서 수창궁(壽昌宮)에 거처하였다.¹³⁹⁾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1178년(戊戌 8년) 3월엔 추밀원사(樞密院使) 이광정(李光挺), 동지원사 최충열(崔忠烈), 부편(副使) 문극겸(文克謙)

138) 『高麗史節要』, 卷之三 顯宗之文大王 庚子, 次全州, 留七日.

139) 『高麗史節要』, 卷之三 顯宗之大王, 設 燃燈會 行宮, 是後, 例以二月望, 行之, 戊申, 完清州, 丁卯還京都, 入御壽昌宮.

등이 아뢰기를 “연등(燃燈)은 예전에는 2월 보름에 하였는데, 근래에 부왕(父王)의 휴식(諱朔 ; 조상의 돌아가신 달)으로 인하여 정월로 바꾼 것은 선왕(先王)의 본의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요사이 해와 달과 별에 이변(異變)이 보이고, 음양의 두 기운이 조화되지 않는 것이 혹이 때문인가 합니다. 청하옵건데 2월 보름에 비록 축하행사를 벌이고 풍악을 연주하는 일은 않더라도 공사관민(公私官民)으로 하여금 모두 각자 분수에 따라 연등하게 하소서 하니” 이를 듣고 그대로 따랐다¹⁴⁰⁾고 기록되어 있다.

6) 근본정신을 남긴 관리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 인간들은 각 분야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봉사하고 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도 모르고 자기 일에 급급해하며 살아오고 있다.

여기서는 고려시대의 관리(官吏)를 비교하여 근본정신을 찾아보고, 세상을 끝마친 후에도 나쁜 사람으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고려사절요의 기록에 의하면 1368년(戊申 17년) 9월 신돈(辛吨)이 유숙(柳淑)을 영광(靈光)에서 죽이고, 김달상(金達祥)을 청주에서 죽였다. 일찍이 유숙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장상(將相) · 대신(大臣) · 문생(門生) · 고리(故吏) 전일의 관속(官屬)들이 모두 교외에서 전송(餞送)하였다. 유숙(柳淑)이 시(詩)를 지었는데, 그 글귀에, “충성이 쇠하여 성의(誠意)가 앓은 것이 아니라 큰 명성(名聲) 밑에는 오래있기 어려운 때문이다” 하였으니 국인(國人)이 모두 그의 명철(明哲)함을 칭찬하고, 왕도 오히려 유숙을 잊지 못하여 칭찬하기를 마지 아니 하였다. … 이때에 이르러 신돈이 유숙과 김달상을 죽이고자 하니 왕이 신돈의 뜻을 어기기가 어려워서 곤장을 치고 관적(官籍)에서 제명하고 재산몰수를 허락하였더니 신돈(辛吨)이 드디어 그들을 죽였다고¹⁴¹⁾기

140) 『高麗史節要』, 卷之十一, 明宗光孝大王 · · ·

141) 『高麗史節要』, 卷之十八, 恭愍王 三.

록하고 있다.

1368년경 관리(官吏) 유숙(柳淑)은 영광에서, 김달상은 청주에서 죽음을 당했으나 유숙의 시(詩) 속에는 당시 시대상을 담고 있어 그의 명철함을 국민 모두 뿐만 아니라 왕도 칭찬하고 있다. 이들 관리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자 왕은 죽음을 대신하여 곤장(棍杖)을 치고 말았는데 끝내 죽음을 당하였다. 이 내용 속에도 관리의 올바른 주장은 나라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인간상은 오늘의 후인들이 본받아야 할 근본정신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고려사절요의 기록에 의하면 1359년(己亥 8년) 7월에 서원백(西原伯) 정오(鄭旼)가 죽었다. 정오는 청주 사람인데, 고을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듣고 말하기를, “흉한 놈 하나가 없어졌군!”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⁴²⁾ 즉, 1359년경 서원백 청주사람 정오가 죽었는데 고을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흉한 놈”이란 말로 표현하였다. 당시 국가의 녹을 먹고사는 관리들의 죽음에 대한 나라사람들의 표현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현대인은 이러한 고전 속에서 바로 걷고 사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7) 맷는말

고려시대 왕성(王城)과 청주의 교통이 불편하였을 텐데도 청주에 왕의 행차가 많았으며, 배를 건조케 하였고, 손수 나성(羅城)을 쌓았으며, 또 왕성(王城)의 9개 문중 청주로 통하는 문은 안정문(安定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봉건시대 청주, 충주, 양광주(楊廣州)의 토공(土貢)은 설사(塞柵)였으며, 은(銀) 또는 은그릇(銀器)도 관에 납입토록 하고 돈을 만들어(鐵錢) 돌려주어 공사 간에 편리를 도모하였다.

청주는 고려시대에 평지에서 물이 솟아올라 수재로 180호나 표몰(漂沒)하였고, 눈이 3척이나 되었으며, 청주에 큰 수재로 인하여 죄수를 석방하였고, 서울에서는 150명이 석방되었다. 홍수로 성안에서 배를

¹⁴²⁾ 『高麗史節要』, 卷之十七, 恭愍王 二.

타게 되었고, 옥(獄)에 갇힌 죄인들을 고문하다 별안간 천둥번개(雷雨)가 일어나 성의 남북문(南北門)을 무너뜨렸으며, 수심이 한길이 넘었다. 국교인 불교의 법회중 하나인 연등회 일정이 2월 15일로 정해진 시원지(始原地)가 청주에 있는 행궁으로 밝혀지고 있다.

관리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갈 때 장상(將相), 대신(大臣), 고리(故吏) 등이 교외에 나와 전송하였고, 관리의 시(詩) 한수가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으며, 왕도 죽음을 곤장으로 대신하였다. 이와 반대로 어떤 관리의 죽음을 듣고 고을 사람들은 ‘흉한 놈’ 하나가 없어졌다고 표현했다.

이 두 관리의 죽음에 대한 고을 사람들의 표현을 보고, 또 국가의 녹을 먹는 두 관리가 후인에게 근본정신을 남겨준 것이며, 현대인에게 바르게 살아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음을 느끼게 하였다.

6. 고려시대의 충주(I)

1) 머리말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역사의 전개과정은 서로 다른 간격을 두고 생성, 발전 그리고 쇠퇴라는 본연의 길을 밟게 되고, 그 위대했던 힘도 한계점(限界點)에 달하면 역사적 임무를 끝맺기 전에 자기 자리를 그다음 주자에게 이양(移讓)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단계가 순서대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작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그것을 싸고 있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발생하게 되고, 발전단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것을 자극할 만한 동기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 시간의 장단(長短)은 그 당시 시대정신(時代精神)에 따라 올바른 방향제시와 이를 밀고 나가는 원동력, 즉 정신에 따라 발전단계의 시간이 정해진다.

쇠퇴기에 들어서는 데는 원인이 있고,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명확하게 밝혀지기 마련이다.

고려시대(918-1392년)도 역사의 발전단계는 예외는 아니며, 성립과 전성기 그리고 몰락이란 단계를 밟았을 것이다.

여기서는 고려시대 전체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의 사회 경제의 변화에 따라 12목(牧) 중 하나인 충주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밝혀 지역경제의 뿌리를 찾아보려고 시도하기 위함이다. 충주지역은 옛 부터 한강상류(漢江上流)에 자리 잡고 있어서 관할 지역이 넓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하여 경제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독특한 특수성이 내포되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선인들의 발자취를 찾아 그들의 생활 속에서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데 마음으로나마 자

기 자신을 한 번 더 역사 속에 비쳐보고 성찰(省察)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고려시대에 한정시켜 두고 충주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이에 고전사료(古典史料) 몇 권을 기본으로 하여 충주지역경제의 뿌리를 밝혀 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충주의 연혁을 비롯하여 사고보전(史庫保全)의 땅으로 당대 전국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였는가, 그리고 한 시대의 획을 긋는 난(亂), 특히 충주관노(忠州官奴)의 난(亂)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충주의 연혁

『충주관찰지』의 기록에 의하면 본래 고구려의 국원성(國原城)¹⁴³⁾으로 신라가 이를 취하여 540년(眞興王 元年)에 소경(小京) 또는 사천성(四川省)으로 칭하였고, 귀척자제(貴戚子弟) 및 6부 호족(6部 豪族) 등이 충주에 옮겨 대단한 토지의 번영을 촉진하였고, 647년(景德王 元年)에 중원경(中原京)으로 고쳐 부르고, 전국토의 중앙지임을 표방한 후 약 200년이 경과한 940년(高麗 太祖 23년)에 다시 고쳐 충주로 삼았다.

983년(成宗 2년)엔 처음으로 12목(12牧)을 두었는데, 충주는 그 중 하나이다.

995년(성종 14년)에 12주(12州)에 절도사(節度使)를 두었고, 도(道)를 설치하여 양성면 용대리(仰城面 龍垈里)에 절도사(節度使) 및 창화군(昌化軍)을 배치한 별초군(別抄軍) 300명을 상비(常備)시키고 중원도(中原道)라 칭하였다.

1010년(顯宗 元年)에 절도사를 폐지하고 안무사(安撫使)를 배치하였고, 1018년(顯宗 9년)에 다시 목(牧)을 삼아 8목(8牧)의 하나가 되었다.

143) 未乙省 또는 長城이라고도 한다. 檀君 2381年(48年)까지는 長城으로 일컬어졌다.

忠州地方은 漢江 本流 水軍의 편리한 위치에 있어서 전략상 중요한 땅이 됨을 보고 지명을 國原城으로 稱하였다.

1056년(文宗 10년)에는 충주군(忠州郡)을 분할하여 익안현(翼安縣)을 설치(현재 이류면)하였고, 1081년(현종 35년)에는 다시 합병하여 충주도호부(忠州都護府)로 개칭하여 목사(牧使)가 배치되었고, 1254년(高宗 41년)에 국원경(國原京)으로 삼았다.

이때에 원나라(元)의 국왕이 대병(大兵)을 거느리고 동진(東進)하고, 암록 강 동쪽(鴨綠江以東)의 군·현민(郡·縣民)은 거의 도륙(屠戮)의 난(難)을 무릅쓰고 원나라 군대(元軍)가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충주에 쳐들어 왔을 때, 창정 최수(倉正 崔守)는 용감하고 날쌘 병사를 모아서 금당현(金堂峴 : 현재 동량면)의 적병(敵兵)을 대치시켜 복병(伏兵)을 맞이하고, 원나라 군대의 진로를 막아 남쪽의 군현(郡縣) 모두가 난을 면하게 하여 창정 최중(倉正 崔中)의 공훈(功勳)은 이 전쟁에서 충주의 명성과 함께 온 나라에 울려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⁴⁴⁾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1277년(忠烈王 3년)에 충주성(忠州城)을 개축(改築)하여 위험을 막을 수 있고 견고하고 높은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하여 성벽(城壁)에 명공(名工)의 묘기(妙技)를 나타낸 연화(蓮花)를 조각함으로써 충주의 별호(別號)를 대원(大原 : 성묘(成廟)의 定한 바이다)이라 하고 또 호(號)를 예성(藥城)¹⁴⁵⁾이라 하였다.

양진명소(楊津溟所), 양진연소(楊津衍所)가 있었고, 1군 5현(1郡 5縣)이 소속하였으며 1지사군(1知事郡)을 관할(管領)하였다.¹⁴⁶⁾

조선시대에 와서는 1392년(太祖 心年)에 고려시대의 군현(郡縣)을 그대로 두고 목사(牧使)를 배치하였으나, 1449년(世宗 31년)에 이르러 행정구획(行政區劃)을 변경하여 충주도(忠州道)로 변경, 특별히 좌감사(左監司)를 설치하였지만 1457년(世祖 3년) 충주진관(忠州鎮管)으로 개칭하고 7구(7區), 즉 충주, 영춘, 단양, 청풍, 괴산, 연풍, 음성의 군정사무(軍政事務)를 관장하였다.

144) 奧上居天外 著, 『忠州觀察誌』, 1931. 12. 10. 2~3쪽.

145) 高宗 42 年 多仁의 鐵所 사람들이 蒙古兵을 막아 공훈이 있었으므로 所를 올려 翼安縣으로 삼았다.

146) 『高麗史』, 卷五十六, 志 卷 第十 地理一.

그 후 1550(明宗 5년)에 이홍남(李洪男)이란 사람이 친동생을 살해한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주명(州名)을 강등하여 유신현(維新縣)으로 부르던 시기도 있었다. 그 후 17년이 지나 살해사건의 진범이 홍남(洪男)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자 주명(州名)이 회복되었고, 1539년(宣祖 26년)에는 목사(牧使)외에 관장(管將)을 늘려 설치하여 충주의 명성(名聲)은 점차 왕성하게 되었다.

1730년(英祖 6년)에는 1,000여년간 성쇠(盛衰)의 변천이 뜯구름같이 되었지만 인심은 그 사이에 호수와 같았다.

1895년(高宗 32년)에 관찰사(觀察使)를 설치하여 본도의 행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1909년(隆熙 3년)에 교통이 불편하단 이유로 관찰도청(觀察道廳)은 청주로 이전되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방병(韓日合併)에 따라 충주는 군청 소재지로 되었다.

이상에서 고구려의 국원성(國原城)으로부터 한일합병까지 충주의 관할구역 및 명칭의 변천 등을 알아보았다.

3) 사고보전의 땅 충주

사고(史庫)를 수도 이외에 심산유곡(深山幽谷)과 해도(海島)에 두어 병화(兵火)를 피하였던 것은 고려시대에도 행하여졌던 것이다. 대륙과 바다의 중간에 처한 우리나라는 두 방면으로부터 끊임없는 외구의 침입을 받는 처지여서 사적과 기타 중요한 문현을 보전하려면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가야산 해인사(伽耶山 海印寺)와 같은 심산유곡(深山幽谷)에 사고(史庫)를 짓고 실록(實錄) 및 국사(國史)의 부분(副本)과 기타 중요한 경사(經史) 서적을 보관해 두었었다.¹⁴⁷⁾

해도(海島)에 국사(國史)를 보관해 둔 기사를 보면 1269년(元宗 10년) 5월에 왜구(倭寇)가 장차 침입하리라는 보고가 들어오자 창선현(彰善

147) 金庠基, 『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1961, 6. 15. 860쪽.

縣 : 晉州의 興善島)에 보관해 두었던 국사(國史)를 진도(珍島)로 옮긴 일이 있었다. 어찌되었던 해인사(海印寺)의 사고(史庫)는 매우 기원이 오래된 듯하다.

1379년(憲王 5년)에 왜구의 화(禍)를 염려하여 해인사 소장의 역대실록(歷代實錄) 및 경사(經史) 제서(諸書)를 선주(善州 : 善山) 득익사(得益寺)로 옮겼다가 다시 보주(甫州 : 體泉郡) 보문사(普門寺)를 거쳐 1381년(同王 7년) 7월에 왜구가 안동에 침입할 기세를 보이자 그것을 다시 충주 개천사(開天寺)로 옮겼으며, 1383년(同王 9년) 6월에 또 다시 왜구의 화를 염려하여 죽주(竹州 : 竹山-安城郡) 칠장사(七長寺)로 옮겨 보관하였다.¹⁴⁸⁾

1381년 7월에는 왜구가 김해부(金海府)에 침구(侵寇)하였다. 경상도 안염(按廉)이 보고하기를 “왜구가 축산도(丘山島 : 寧海地方)에 들어와 안동 등 각처를 침입코자 하니 보주(甫州 : 體川地方) 보문사(普門寺)에 소장한 사적을 내지(內地)로 옮기기를 청하나이다” 하거늘 사관(史官)을 보내어 충주 개천사(開天寺) 등에 이치(移置)하였다.¹⁴⁹⁾

왜구가 내륙지역에 함부로 난입하므로(蘭入) 충주 개천사에 소장하고 있었던 사적을 죽주의 칠장사(竹州 七藏寺)로 옮겼다.¹⁵⁰⁾

4) 충주관노의 난

(1) 한 시대의 획을 긋다

중세사회에서의 사회발전은 대내외적인 요인의 작용이라 하겠으나 여기서 다루려는 충주관노 난(忠州 官奴亂)의 의미를 재음미해 보고자 한다. 당시 고려조의 조류(潮流)를 보면 고려의 전성기는 예종 말기(懿宗 末期)로써 종지부를 찍고 인종 초기(仁宗初)부터 고종(高宗) 즉위 때까지 약 90년간에 정치·경제적인 면에 일기를 획할 만한 특징이

148) 金庠基 著, 『韓國全史 高麗時代史』, 東國文化史, 1961. 615 861쪽.

149) 『高麗史』, 卷一三四, 列傳 卷第四十七 章禍二

150) 『高麗史』, 卷一三五, 列傳 卷第四十八 章禍三

있었다.

역대(歷代)를 통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모순은 날로 심하였고, 특히, 무자각한 귀족사회의 사치, 안일, 부허(浮虛), 경박(輕薄)의 풍조를 지적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은 의종(毅宗 : 재임은 1147~1170년)과 그를 싸고도는 간사한 신하 일파(侍臣一派)¹⁵¹⁾이다.

인종(仁宗) 때의 묘청의 난(妙淸亂), 문치주의(文治主義)와 문무(文武)의 차별적 대우가 마침내 의종(毅宗) 때 정중부(鄭仲夫) 등의 무신정권(武臣政權) 지배체제가 출현하였고, 이 지배체제에 대한 여러 반발적인 운동, 무신상호간의 갈등, 각 자방의 서민 및 노예층의 반란(反亂)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중앙정부에 대한 반기로 일어난 정중부(鄭仲夫) 등의 “구태타”와 민란(民亂) 중에도 “무신정권”과 “의종살해”에 대한 항쟁과 같이 가장(假裝)하고 일어난 것도 있었으나 지배층에 대한 계급적 불평, 수탈관리에 대한 원한과 고리차(高利借), 기타 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일어난 하극상(下剋上)적 투쟁, 농민들의 반발(農民一揆), 또는 자기신분의 해방 혹은 양자를 겸한 종류의 것으로 난을 규정할 수 있다.

민란의 주체자 신분은 대체로 농민과 노예 혹은 이서(吏胥)들 이었다. 당시 이들 피지배계층으로 하여금 일종의 각성(覺醒)과 자각(自覺)을 일으키어 구질서(舊秩序)의 잔재현상을 타파하려는 하극상(下剋上)의 투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충주관노의 난

살례탑(撒禮塔)의 회군(回軍)과 동시에 개경(開京)에서는 계엄(戒嚴)을 풀고 다시 평화의 회복을 보게 되었지만, 이 때 충주에서는 관노(官奴)의 난(亂)이 일어났다.¹⁵²⁾

1232년(壬辰 19년)에 충주의 관노(官奴)들이 난을 일으키니 영추(寧

151) 風流道樂의 化身인 毅宗을 싸고도는 무리에는 衛士, 宦者以外에 韓賴, 林宗植, 李復基와 같은 輕挑浮簿의 文臣 등이다.

152) 李丙濤, 『韓國史』(中世篇), 乙酉文化社, 1961. 9. 20. 560~561쪽.

樞)들이 최우(崔瑀)의 집에 모여 발병(發兵)할 것을 의논할 때 주(州)의 판관 유홍익(判官 廉洪翼)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타이를 것을 청하자 주서 박문수(注書 朴文秀)와 전봉어사 김공정(前奉御使 金公鼎) 등을 내시(內侍)에 가짜로 소속시켜(假屬) 시켜 안무별감(安撫別監)으로 삼아 보내었다.¹⁵³⁾ 마침내 안무별감 박문수(安撫別監 朴文秀)는 충주로부터 돌아오고, 김공정은 충주에 머물러 평정되기를 기다렸는데 노군도령영사 지광사(奴軍都領令史 池光寺)와 스님(僧) 우본(牛本)이 서울에 올라왔다.¹⁵⁴⁾

이보다 앞서 주(州)의 부사 천종주(副使 千宗柱)가 매번 문부(文簿) 처리에 있어 홍익과의 사이에 틈이 있더니, 몽고 군사가 장차 이르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성을 지킬 것을 의논하였는데 의견이 달랐다.

종주(宗柱)는 양반별초(兩班別抄)를 거느리고, 홍익은 노군잡류 별초(奴軍雜類 別抄)를 거느리고 서로 시기하더니, 몽고군사가 들이닥치자 종주와 홍익과 양반 등은 다 성을 버리고 달아나고, 오직 노군잡류가 합벽하여 쳐서 물리쳤다. 종주 등이 주(州)로 돌아와 관가(官家)와 사가(私家)의 은그릇(銀器)을 검고(檢考) 하였더니, 노군(奴軍)이 몽고군사가 약탈하여 갔다고 말하였다. 호장(戶長) 광립(光立) 등 대여섯 사람이 노군의 괴수를 죽이려고 유포하므로 노군들이 이를 알고 서로 모의하기를 “몽고군사가 이르면 다 달아나 숨어 버리고, 성은 지키지 않다가 이제는 어찌 몽고군사가 약탈하여 간 것까지 우리에게 죄를 돌려 죽이고자 하는가, 우리가 어찌하여 먼저 도모하지 않으랴”하고, 이에 회장(會葬)하러 오는 사람이라 하고, 고동(螺)을 불어 그의 무리를 모아 먼저 주모자(主謀者)의 집에 가서 불을 지르고, 대체로 토희(土豪)로서 본래부터 원망을 산 자들을 찾아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여 버리고, 또 경내(境內)에 영을 내려 말하기를 “감히 은익(隱匿)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그 가족을 멸하리라”하니 부인과 어린아이까지도 다 화를 입었다.¹⁵⁵⁾

153) 『高麗史』, 卷二十三, 世家卷 第二十三, 高宗 二,

154) 『高麗史』, 卷二十三, 世家卷 第二十三, 高宗 二,

『고려사절요』의 기록에 따르면 1232년(壬辰 19년) 8월에 삼군 병마사를 보내어 충주의 노적(奴賊)을 토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⁵⁶⁾ 그리고 9월에 삼군이 충주를 평정하고 돌아왔다.

삼군이 처음 달내(達川)에 이르렀을 때 물이 깊어 건너지를 못하고 막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노군(奴軍)의 적과 2~3名이 내(川)의 서편에서 고하기를 “우리가 주모자의 목을 베어 가지고 와서 항복하려 합니다”하였다. 이에 이자성(李子晟) 등이 말하기를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꼭 너희를 다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고”하였더니, 적이 도로 성중(城中)으로 들어가 스님 우본(牛本)의 목을 베어왔으므로 관군이 머물며 이를 동안 친을 치고 있게 되자, 노군 중에서 용맹하고 건장한 자들은 다 도망하여 숨었다. 그리고 관군이 성에 들어가 나머지 일당을 잡아 다 죽이고 얻은 재물과 마소(馬牛)를 가지고 와서 바쳤다.¹⁵⁷⁾

155) 『高麗史節要』, 卷之十六, 高宗 安孝大王 三.

156) 『高麗史節要』, 卷之十六, 高宗 安孝大王 三.

157) 『高麗史節要』, 卷之十六, 高宗 安孝大王 三.

7. 고려시대의 충주(II)

1) 충주목 관할구역과 행차

고려 태조가 고구려의 땅에서 일어나 신라에게 항복받고 후백제를 멸하고, 개경(開京)에 도읍하고 삼한의 땅을 통일하게 되었다.

940년(同上 23년)에 이르러 비로소 여러 주(州), 부(府), 군(郡), 현(縣)의 각 명칭을 고치고, 성종(成宗 : 981~997)은 또 주, 부, 군, 현 및 관(關), 역(驛), 강(江), 포(浦)의 각 명칭(各名)을 고쳐서 드디어 경내(境內)를 나누어 10개 도로하고, 12주에다 각기 절도사를 두었다. 그 10개 도는 1) 관내도(關內道) 2) 중원도(中原道) 3) 하남도(河南道) 4) 강남도(江南道) 5) 영남도(嶺南道) 6) 영동총(嶺東叢) 7) 산남도(山南道) 8) 해양도(海陽道) 9) 삭방도(朔方道) 10) 구서도(渠西道)이며, 그 관할하는 바 주, 군은 모두 580여개가 되니 동국지리(東國地理)의 성대함이 이어서 극하였다.¹⁵⁸⁾

985년(乙未 14년) 가을 7월에 도(道)를 정하였는데 충주와 청주 등의 현을 충원도(忠原道)로 삼았고¹⁵⁹⁾, 본도(本道)는 13주(13州) 42현(42縣)을 관할하였다.¹⁶⁰⁾

경기 이외 5도, 즉 양평(楊廣), 교주(交州),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상(慶尙)의 명칭이 이미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에는 현종시대(顯宗時代)에 생긴 것인데, 그 이름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종(高宗)때 부터이다.¹⁶¹⁾

고려의 병제(兵制)는 국초때부터 당나라의 부위병제(府衛兵制)를 본떠 중앙에 6위(6衛)¹⁶²⁾를 두고, 6위를 38령(38領)으로 나누었며, 1령(1領)에 각각 1,000명씩을 배치하여 수도의 방위와 국방에 담당하게 하

158) 『高麗史』, 卷五十六, 志 卷第十 地理一。

159) 『高麗史』, 卷五十六, 志卷第十 地理一。

160) 『高麗史節要』, 卷之二, 咸宗 文懿大王。

161) 李內濬, 『韓國史(中世篇)』, 震樟學會 乙酉文化社, 1961. 9. 20. 696쪽

162) 左石衛, 神虎衛, 興威衛, 金吾衛, 千年衛, 監門衛

였다.¹⁶³⁾

『고려사절요』 기록에 의하면, 928년(戊子 11년) 8월에 충주에 행차하였다가 돌아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⁶⁴⁾

그리고 『고려사』 기록에는 을해년(乙亥)에 어가(御駕)가 충주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⁶⁵⁾

갑진년(甲辰)에는 불온사(佛恩寺)에 행차하고 또 홍국(興國), 법왕(法王) 2개 사찰(寺)에 행차하여 하교하기를 “옛날 우리 태조께서 매양사중(四仲)의 해(1년은 月의 誤)를 맞이하게 되면 삼소(三蘇)¹⁶⁶⁾에 순주(巡駐 : 巡幸駐駕)하였으니, 나도 또한 장차 평양에 거동하여 금강산(金剛山)을 돌아서 충주에 차가(車駕)를 멈추리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¹⁶⁷⁾ 또한 1001년(穆宗 4년) 11월에 중원부(中原府)에 행차하여 풍속을 두루 살피는데, 지나는 주현(州縣)에는 1년의 전조(田組)를 없애도록 하였고, 그 도중에 나아가 공손히 받든 주현(州縣)에는 이를 반으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⁶⁸⁾

또 1001년(穆宗 辛丑 4년) 겨울 11월에 중원부(中原府)에 행차하여 풍속을 두루 살피고, 군신(群臣)을 향연(饗宴)을 베풀고 사면을 하였으며, 호종관(扈從官)과 순력(巡歷)한 주군(州郡)의 관원(官員)에게는 1계급 증진시키고, 더하고 물(物)을 내려주되 차등 있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⁶⁹⁾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1001년(辛丑 4년) 겨울 11월에 왕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풍속을 살피고자 하여 중원부(中原府 : 忠北 忠州)에 행차하여 군신에게 연회를 베풀고 죄수를 사면하고, 행차가 경유한 주·

163) 金庠基, 『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1961. 6. 15. 58쪽

164) 『高麗史節要』, 卷之二, 太祖神聖大王.

165) 『高麗史』, 卷二十九, 世家 卷第三十九, 恭愍王二

166) 三蘇 : 左蘇=白岳山, 右蘇=白馬山北蘇=箕達山을 말한 것으로 『高麗史節要』 明宗 4年 夏 5月 條에 「制左蘇白岳山 岳蘇白馬山 北蘇 箕達山 置延基 宮闈造成官」이라 하였음.

167) 『高麗史』, 卷四十一, 世家 卷第四十一, 恭愍王四.

168) 『高麗史』, 卷八十一, 志卷第三十四 食貨三.

169) 『高麗史』, 卷三, 世家 卷第三 穆宗.

현에는 년의 전조(田組)를 감면하고, 호종(扈從)한 관원과 행차의 경유한 주군의 관원에게 한 계급을 올려 주고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⁷⁰⁾

『고려사』 기록에는 여러 차례 옮겨 시어사(侍御史)가 되고 나가 양광도(楊廣道)를 두루 살폈다. 왕이 흥건적(紅巾賊)을 피하여 남행(南幸) 할 적에 종원(宗源)이 길에서 배알(拜謁)하고 먼저 충주에 가서 공어(供御)를 대비하는데 좌우가 참소하기를 「안염(接廉)이 충주에 이르러 이미 재(嶺)를 넘어 도망하였다」 하니 왕이 이를 믿고 중사(中使)를 보내어 잡아오게 하니 사자(使者)가 충주에 이르러 종원(宗源)이 관(館)에 있어 공판(供辦)을 주관하는 것을 보고 잡아서 함께 오니 왕이 그 무고(謫告)함을 알고 석방하고 묻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⁷¹⁾

「…유의(愈義) 등이 현종(顯宗)을 모시고 와서 드디어 연총전(延寵殿)에서 즉위(卽位)하니 조(兆)는 목종(穆宗)을 폐하여 양국공(讓國公)으로 삼아 합문통사 사인 전엄(閤門通事 介人 傳嚴) 등을 시켜 이를 지키게 하고…」

『고려사』의 또 다른 기록에는 목종(穆宗)이 항(沆)으로 하여금 말을 조(兆)에게 청하니 1필(一匹)을 보낸지라 또 인가(人家)에서 1필(一匹)을 취하여 목종과 태후(太后)가 이를 타고 선인문(宣仁門)으로부터 나와 충주로 향하여 적성현(積城縣)에 이르니 조(兆)가 상약직장 김광보(尙藥直長 金光甫)를 보내어 독(毒)을 올렸으나 목종(穆宗)이 마시기를 즐기지 않으니 광보(光甫)가 수종(隨從)하는 중금 안패(中禁 安霸) 등에게 말하기를 「조(兆)의 말에 만약 능히 독을 올리지 못하면 가히 중금 군사(中禁軍士)를 시켜 대사(大事)를 행하고 자결(自刃)하였다고 보고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너희들이 함께 멸족(滅族)한다」고 하니 밤에 패(霸) 등이 이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아뢰고 문짝(門扇)으로 관(棺)을 만들어 임시로 관(館)에 두니 조(兆)가 사람을 시켜 현창미

170) 『高麗史節要』, 卷之二, 穆宗 宜讓大王。

171) 『高麗史』, 卷一百九, 列傳 卷第二十二。

(縣倉米)로 밥을 지어 제사(祭)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⁷²⁾

그리고 1129년(己酉 7년) 6월에 중서문하(中書門下)에서 아뢰기를 “충주사람 유정(劉挺)이 아비를 죽였는데, 그 목수(牧守) 및 주리(州吏)가 능히 백성을 가르치지 못한 까닭이므로 청하옵건데 모두 법관에 회부하고 주(州)는 강등(降等)하여 군(郡)으로 만들게 하소서”하였다.

왕이 좌우의 신하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주(邾)나라의 누정공(婁定公) 때에 그 아비를 죽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집을 헐고 그 집터에 봉을 파 버렸을 뿐이요,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 읍(邑)은 말하지 않았다. 즉 주(州)를 낫추어 군(郡)으로 만드는 것은 옛 법이 아닙니다”라고 하니 이를 좋았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⁷³⁾

2) 덕홍창과 34참역

(1) 충주의 덕홍창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국초(國初)에 남도(南道)의 수군(水郡)에 12창(12倉)을 두어 충주는 덕홍창(德興倉)이라 하고, 원주(原州)는 홍원창(興元倉), 아주(牙州)는 하양창(河陽倉), 부성(富城)은 영풍창(永豐倉), 보안(保安)은 안흥창(安興倉), 임피(臨陂)는 진성창(鎮城倉), 나주(羅州)는 해륙창(海陸倉), 영광(靈光)은 부용창(芙蓉倉), 영암(靈巖)은 장홍창(長興倉), 성주(昇州)는 해용창(海龍倉), 사주(泗州)는 통양창(通陽倉), 합포(合浦)는 석두창(石頭倉)이라 하였다. 또 서해도(西海道)의 장년현(長淵縣)에는 안란창(安瀾倉)을 두고 창에는 판관(判官)을 두어 주군(州郡)의 조세를 각각 그 부근의 여러 창고에 수송하였다가 이듬해(翌年) 2월에 조운(漕運)하여 가까운 곳은 4월을 기한으로 하고, 먼 곳은 5월을 기한으로 하여 경창(京倉)에다 수송하도록 하여 기한 내에 배를 보

172) 『高麗史』, 卷一百二十七.

173) 『高麗史節要』, 卷之九, 仁宗 恭孝大王一.

내도록 하여 풍파(風波)로 인하여 부리하게 되어 초공(梢工) 3인 이상 수공잡인(水手 雜人) 5인 이상과 아울러 미곡(米穀)을 물에 빠뜨린(潭沒) 자는 징납(徵納)하지 않았으나 기한 외에 배가 출발하여 초공(梢工), 수수(水手) 3분의 1이 부서져 가라앉은 자는 그 관(官)의 색전(色典)과 초공(梢工), 수수(水手) 등이 평균하여 징납(徵納)토록 하였다. 그리고 992년(成宗 11년)에 조선(漕船)으로 경창(京倉)에 운수하는 운송비를 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⁷⁴⁾

정종(靖宗) 때에 12창 조선(漕船)의 수를 정하였다. 석두(石頭), 통양(通陽), 하양(河陽), 영풍(永豐), 진성(鎮城), 부용(芙蓉), 장흥(長興), 해룡(海龍), 해륙(海陸), 안흥(安興倉)은 각각 배(船) 6소(艘)와 아울러 초마선(哨馬船) 1척(船)으로 하여 1000석을 배에 싣고, 덕흥창(德興倉)은 12소(12艘), 원흥창(興元倉)은 21소(21艘)와 아울러 평저선(平底船) 1척으로 하여 200석을 배에 싣도록 하였다.

1079년(文宗 33년) 1월에 판단(判)하여 공사 조운(公私 漕運)의 곡미(穀米)를 초공(梢工), 수공(水手) 등이 배가 부서지고 물에 빠지는 것을 거짓으로 알리고 사사로이 나누어 쓰는 자는 모두 이를 징납(徵納)토록 하였다.¹⁷⁵⁾

(2) 충청주도 34참역과 공수전지 지결

고려시대 참역제(站驛制)는 매우 발달되어 역전계통(驛傳系統)은 전국에 펼쳐 있었다. 참역(站驛)은 정령(政令) 및 공보(公報)의 전달과 군사적 연락 및 지방파견 관원의 체송(遞送)과 특수물자의 수송 등을 사령(使命)으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참역(站驛)에는 역전(驛田), 역정(驛丁) 및 역마(驛馬)를 두어 그의 기능을 발휘케 하였던 것이다.

역(驛)에는 교통량과 군사 및 경제의 중요성에 따라 대(大), 중(中), 소로(小路)의 3등급으로 구별하여 공수전(公須田), 지전(紙田), 장전(長田) 공수자지(公須紫地), 관전(館田) 등에 차이를 두어 급여하고, 참역

174) 『高麗史』, 卷七十九, 志 卷第三十三 食貨二.

175) 『高麗史』, 卷七十九, 志 卷第三十三 食貨三.

(站驛)에 관한 경비와 객관의 식료, 공급 등의 재원을 삼게 하였다. 그리고 역(驛)의 정호(丁戶)에 있어서도 각 역을 6과(6科)¹⁷⁶⁾로 나누어 역정(驛丁)의 수를 차등적으로 배정하였다.

대로역(大路驛)¹⁷⁷⁾은 공수전 60결(結), 지전 5결, 장전은 2결로 하고, 중로역(中路驛)은 공수전 40결, 지전과 장전은 각각 2결로 하고, 소로역(小路驛)은 공수전 20결에 지전 2결로 하며, 대로관(大路館)은 밭(田) 5결, 중로관(中路館)은 4결, 소로관(小路館)은 3결로 하였다.¹⁷⁸⁾

참역의 계통을 보면 전국에 걸쳐 역로(驛路)의 간선(幹線)이 22도에 참역(站驛)의 수가 525개소로 방대한 것이었다.

<表 2-5> 高麗時代 全國 道別 站驛分布

道驛	道驛	道驛	道驛
산예도(獮貌道)	10	삭방도(溯方道)	42
금교도(金郊道)	16	청교도(青郊道)	15
절영(비금)도 岳嶺(慈悲)道	11	춘주도(春州道)	24
홍교도(興郊道)	12	평구도(平丘道)	30
홍화도(興化道)	29	명주도(溟州道)	28
운중도(芸中道)	40	경(慶)주도(慶州道)	15
도원도(桃源道)	21	충청주도(忠淸州道)	34
			김주도(金州道)
小計	139	188	25
			경산부도(京山府道)
合計			196
			523

주 : 本文의 525驛보다 2驛이 작다.

자료 : 金庠基, 『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1961.6.15. 317~320쪽

176) 1種: 75丁, 2種: 60丁, 3種: 45丁, 4種: 30丁, 5種: 12丁, 6種: 7丁.

177) 站驛의 1種이나 站驛은 政令 및 公報의 傳達과 軍事의 連結 및 地方派遣 官員의 遷送과 特殊物資의 輸送量과 軍事 및 經濟의 중요성에 따라 大中小路 등의 3等級으로 구분하였다.

178) 『高麗史』, 卷七十八, 志 卷第三十二, 食貨一.

<表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23역 중 운중도(雲中道)와 삭방도(朔方道)는 40역 이상이며, 충청주도(忠淸州道), 평병도(平兵道), 승나주도(昇羅州道), 전주도(全州道)는 30역 이상이며, 흥화도(興化道), 축누도(春州道), 명주도(冥州道), 산남도(山南道), 경주도(慶州道), 상주도(尙州道), 경산부도(京山府道)는 각각 25~30개의 역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4개의 역을 가지고 있는 충청주도의 참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2도 중 충청주도는 14번째로써 충청주도는 소호(蒼好 : 水州-水原), 가천(嘉川 : 陽城), 장지(長池 : 淸州), 퇴량(堆糧 : 鎮州-鎮川), 금사(金沙 : 燕岐), 포곡(蒲谷 : 全義), 성환(成歡), 신사(新思 : 天安), 장세(長世 : 牙州-牙山), 이홍(理興 : 溫水-溫陽), 일홍(日興 : 禮山), 일신(日新 : 公州), 은산(銀山 : 扶餘), 유양(榆楊 : 定山), 홍주역(洪州驛 : 洪城), 광세(光世 : 大興), 금정(金井 : 青陽), 몽태(夢態 : 貞海-海美), 영유(靈榆 : 嘉林-林川), 비태(非態 : 鴻川) 등 34역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⁷⁹⁾.

993년(成宗 12년) 8월에 판단하여 제주, 부, 군, 현, 역, 로(路)에 공수전지(公須田地)를 지급하되 1,000정(丁) 이상은 80결, 500정 이상은 60결 500정 이하는 40결, 100정 이하는 20결로 하고, 12목(12牧)은 정(丁)의 다소를 막론하고 100결로 하고, 지주사(知州事)는 비록 100정 이하라도 60결로 하며, 동서도(東西道)의 대로역(大路驛)은 50결로 하고, 중로역(中路驛)은 30결로 하며, 양계(兩界 : 事界, 北界)의 대로역(大路驛)은 40결로 하고, 중로역(中路驛)은 20결로 하며 동서남북(東西南北)의 소로역(小路驛)은 15결로 하게 하였다.¹⁸⁰⁾

983년(成宗 2년) 6월에 주(州), 부(府), 군(郡), 현(縣), 관(館), 역(驛)의 전(田)을 정하였는데, 1,000정 이상의 주현은 공수전(公須田)¹⁸¹⁾ 300결, 500정 이상은 공수전(公須田) 150결, 지전(紙田)¹⁸²⁾ 15결, 장전(長田)¹⁸³⁾

179) 金庠基, 『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1961. 6. 15. 319쪽.

180) 『高麗史』, 卷七十八, 志 卷第三十二, 食貨 1.

181) 公須田에 속하는 것으로 地方官員의 薦俸 기타의 經費에 充當하도록 分給한 田地를 말함.

5결, 200정 이상은 (缺), 100정 이상은 공수전 70결, 지전 10결, 100정 이하는 공수전 60결, 장전 4결, 60정 이상은 공수전 40결, 30정 이상은 공수전 20결, 20정 이하는 공수전 10결, 지전 7결, 장전 3결 등으로 하였다.¹⁸⁴⁾

향(鄉), 부곡(部曲)으로 1,000정 이상은 공수전 20결, 100정 이상은 공수전 15결, 50정 이하는 공수전 10결에 지전 3결과 장전 2결 등으로 하였다.¹⁸⁵⁾

3) 충주목 향소부곡의 규모와 국역

(1) 향·소·부곡의 규모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의하면 왕년의 향(鄉), 부곡(部曲), 처(處), 소(所)의 이름이 많이 그대로 현재의 면이름(面名)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충청도 충주목(忠淸道 忠州牧)에는 37개면이 있는데, 그 중 향(鄉), 소(所), 부곡(部曲)이었던 것이 확인된 것은 5개면(5個面)이다.

소 탄 면 고연탄처(所眷面 古淵眷處)

대오곡면 본래 대오곡처(大烏谷面 本大烏谷處)

감물내면 본래 감물내미부곡(甘勿內面 本甘勿內彌部曲)

사을미면 본래 처반석부곡(沙乙末面 本處反石部曲)

덕 산 면 본래 덕산향(德山面 本德山鄉)

향·소·부곡(鄉·所·部曲)의 규모는 대체로 면규모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몇 개의 향(鄉)이나 부곡(部曲) 또는 향과 부곡이 일반 촌과 합쳐져서 현(縣)을 이루고 있고, 또는 향(鄉)이 7개 모여서 1현(1縣)을 이루었으며, 소(所) 3개 또는 부곡(部曲) 2~3개가 합쳐서 1현이 되는 등 향·소·부곡이 현 밑에 있는 구획임을 알 수 있다.

182) 地方官廳의 소모품인 종이, 봇, 먹 등의 잡비에 충당하도록 分給한 田地.

183) 館驛長의 公費에 充當하도록 分給한 田地

184) 『高麗史』, 卷七十八, 志 卷第三十二, 食貨一.

185) 『高麗史』, 卷七十八, 志 卷第三十二, 食貨一.

『여지승람(輿地勝覽)』에 나오는 촌(村), 리(里)는 대개 후일의 면정도의 규모이다.¹⁸⁶⁾ 향·소·부곡만 후일의 면이 된 것이 아니라 군, 현 중에서도 면이 된 것이 많으니, 『송사 고려전(宋史 高麗傳)』에 전하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의 군·현 중에는 아주 작은 것도 있었다.¹⁸⁷⁾ 지금 군현으로 후일에 면이 된 것은 제천군 청풍면 청풍현이 있다.

(2) 충주에 내려진 국역

중세봉건사회에 있어서 농민수취의 기본적인 체계를 부역제도라고 한다. 그 종류로는 주부역(週賦役), 임시부역(臨時賦役)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료에 근거하는 경제사적인 수취(收取)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충청도 안집사(安集使)가 되면, 관비(官婢)로 미색(美色)있는 자 5명을 뽑아 바쳐 올리고, 또 충주 백성 정향(丁香)이 은(銀)을 많이 저축함을 듣고 혹형으로 바치기를 재촉하니 정향이 가진 것을 다하여도 부족하여 또 30여근을 빌려 이를 보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⁸⁸⁾

여름(夏) 4월 정묘(丁卯)일에 원나라가 유홍홀노(劉弘忽奴)를 보내오자 왕이 이장무(李藏茂)에게 명하여 함께 충주에 가서 환도(環刀) 1,000자루(1千柄)를 주조케 하였다.¹⁸⁹⁾

『고려사』 기록에는 1099년(肅宗 4년) 4월에 주, 부, 군, 현으로 하여금 각각 둔전(屯田) 5결(結)을 경작토록 허락하였다.¹⁹⁰⁾ 360개 장처(藏處)의 전토(田土)는 주상께 봉공(奉公)코자 함이며, 주, 부, 군, 현, 향,

186) 『輿地勝覽』에서 村, 里는 후일의 면정도의 것임을 보면, 영춘현의 입석부곡은 지금의 가개국촌(立石部曲 今駕介國村)이고, 소필곡부곡은 지금의 수출지촌(所必谷部曲 今水出只村)을 말하고,堤川縣의 소당부곡은 지금의 소탕리(小堂部曲 今所湯里)를 말함.

187) 『宋史』, 高麗傳 堤川郡 清風面 清風縣

188) 『高麗史』, 卷二十八, 世家 卷第二十八 惠烈王一,

189) 『高麗史』, 卷七十九, 志 卷第三十三, 食貨二,

190) 『高麗史』, 卷七十九, 志 卷第三十三, 食貨二,

소, 부곡, 진, 역의 관리부터 모든 국역을 제공하는 자에 이르기까지 수전(受田)하지 않음이 없는 것은 민생(民生)을 후하게 하여 나라의 근본을 불리고자 함이며, 42도부(42都府) 42,000명의 병사에게 모두 전토(田土)를 줌은 철저한 준비를(武備)를 중히 하는 까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¹⁹¹⁾

4) 도읍지 충주와 진상서적

(1) 도읍지로서 충주

1369년(乙酉 18년) 가을 8월에 삼소(三蘇)에 순주(巡駐)하는 의논을 정지하였다. 이보다 먼저 신돈(暉)이 비밀리에 시중(侍中) 이춘부(李春富)를 시켜서 충주에 도읍을 옮길 것을 청하니, 왕이 노하므로 신돈이 평계하기를 “송경(松京)은 바다에 가까우니 해구(海寇)가 두렵습니다” 하여 해명하였다. 이에 왕이 곧 명령을 내리기를 “옛날 우리 태조(太祖)는 매년 해마다 사중월(四仲月)에는 삼소(三蘇)에 순주(巡駐) 하였는데, 나도 역시 장차 평양에 행차하고 금강산(金剛山)에 순행하며 충주에 주가(駐駕)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백성을 징발하여 길을 닦으니, 화곡(禾穀)들이 많이 손상되었다. 또 평양과 충주에 모두 이궁(離宮)과 공주(魯國公主)의 혼전(魂殿)을 짓고 물자를 비축하여 공급하게 하니 백성이 매우 곤란을 겪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⁹²⁾ 그러나 사이가 나빠지는 것(吨)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⁹³⁾ 그 이후 1387년(丁卯 13년) 11월에 우(偶)가 내승(內乘)으로 하여금 말 300필을 충주에서 기르게 하였다. 내수(內堅)들이 이것을 빌미로 침탈하고 횡포하니 주(州)와 군(郡)이 고통으로 여겼었다.¹⁹⁴⁾

이상과 같은 사료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14세기 후반에 도읍(서

191) 『高麗史』, 卷七十八, 志 卷第三十二, 食貨一.

192) 『高麗史節要』, 卷之二十八 恭愍王三.

193) 『高麗史』, 卷一百三十二.

194) 『高麗史節要』, 卷之三十二, 辛禡 三.

울)을 충주로 옮길 것을 청하였는데, 그 당시 지세로 보아 충주는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왜적의 침입에도 안전하고 전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것을 내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선왕(太祖)때부터 매년 4월중이면 삼소에 순주하였으니 나도 평양, 금강산, 그리고 충주에 가겠다고 하여 백성을 징발하여 길을 닦으니 벼와 곡식들이 많이 손상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평양과 충주에 이궁과 공주의 혼전을 짓게 되니 백성들이 매우 곤란함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말(馬) 300필을 충주에서 기르게 하였으니 이것이 빌미가 되어 주, 군에서는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2) 충주목의 진상서적

고려인의 정력과 기술이 가장 많이 경주되고 발휘된 것은 인쇄(印刷)와 도자(陶瓷)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인쇄(印刷)에 대하여 말하면 고려 전기의 인쇄는 순전히 목판인쇄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거니와 이 조판인쇄가 일찍 발달하게 된 이유는 대내적으로는 불교, 유교의 경전을 비롯하여 의서, 기타 각종 서적의 보급과 보존을 도모하려는 욕구와 대외적으로는 송나라(宋)의 신판목(新板木)의 자극과 영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현종(顯宗) 아래, 『대장경(大藏經)』 조판(雕版), 의천(義天)의 『속장경(續藏經)』 간행 등 거창한 인쇄사업이 전개되었다.

『고려사』 기록에 1056년(文宗 10년)에는 서경 유수(西京 : 平壤 留守) 주청비각(奏請秘閣)에 의하여 비각(秘閣 : 秘書省) 소장의 9경(九經), 한진당서(漢晉唐書), 논어(論語), 효경(孝經), 자사(子史), 제가문집(諸家文集), 의복(醫卜), 지리(地理), 율산(律算) 등의 책을 각 1권씩(1本)씩을 인쇄하여 서경 여러 학원(西京 諸學院)에 나누어 간직토록 하였다.¹⁹⁵⁾

문종(文宗) 때에는 또 충주목(忠州牧 : 忠州),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

195) 『高麗史』, 卷七, 文宗世家 十年 八月條.

: 海州), 경산부(京山府 : 星州), 남원부(南原府 : 南原) 등 주요지방의 관원들이 각종 서적의 신조판(新雕板)을 진상하여 이를 비각(秘閣)에 간직해 두도록 한 일이 있었으니 충주목(忠州牧)에서 진상한 서명(書名)을 살펴보자.

1058년(文宗 12년)에 충주목(忠州牧)에서 신각서명(新刻書名)으로 모 두가 의약(醫藥)에 관한 서적으로 『황제팔십일난경(黃帝八十一難經)』, 『천옥집(川玉集)』, 『상한집(傷寒論)』, 『초본괄요(本草括要)』, 『소아소씨 병원(小兒巢氏病源)』, 『소아약증병원일십팔론(小兒藥證病源一十八論)』, 『장중경오장론(張仲卿五臟論)』등 99판(板)을 진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⁹⁶⁾

특히, 의약서(醫藥書)에 관한 신조판이 많은 것은 문종(文宗) 때에 이 방면 연구서(學書)의 보급 및 발달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하나의 예증(例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적의 인쇄에 따른 종이류(紙類)의 생산은 당연히 제지기술을 높이고 발전시켰음을 상상할 수 있다. 또 그 맥락으로 충청북도(忠淸北道) 북부지방에는 옛 부터 제지수공업이 발달하여 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몽고군의 충주침입

몽고(蒙古)의 대군이 계속하여 서북변경으로 들어왔으며, 그의 후기(候騎)는 광주(廣州)를 거쳐(4월 4일) 괴주성(槐州城 : 槐山) 아래에 진둔(鎮鈍)하니 산원 장자방(散員 張子邦)은 별초(別抄)를 이끌고 이를 격파하였다.¹⁹⁷⁾

몽고 군사가 광주(廣州), 충주, 청주 등지로 향하였는데, 지나는 곳마다 잔멸(殘滅)하지 않은 데가 없었다.¹⁹⁸⁾

1254년(甲寅 41년) 9월에 차라대(車羅大)가 충주산성(忠州山城)을 공

196) 震檀學會, 『韓國史』(中世篇), 乙酉文化社, 1961, 323쪽.

197) 金率基, 『高麗時代史』, 1961, 6, 15. 544쪽.

198) 『高麗史節要』, 卷之十六, 高宗 安孝大王 四

격하였는데, 졸지에 큰바람이 휘몰아치고 급한 비가 쏟아졌다. 성안(城安) 사람들이 정예 군사들을 뽑아 맹렬하게 반격하자 차라대가 포위를 풀고 드디어 남쪽으로 내려갔다.¹⁹⁹⁾

몽고병(蒙兵)이 충주에 들어와 주성(州城)을 무찌르고 또 산성(山城)을 치니 관리와 노약자들이 능히 막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월악신사(月嶽神祠)에 올라갔더니 홀연히 운무(雲霧)가 끼고 풍우(風雨)와 천둥벼락(雷電)이 함께 들여 치니 몽고병들이 신(神)의 도움이라 생각하여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갔다.²⁰⁰⁾

12월 임술(壬戌)일에 충주에서 급하게 알려 오기를 봉고 병사들이 포위를 풀었다고 하였다.²⁰¹⁾

겨울(冬) 10월 을축(乙丑)일에 몽고병이 대원령(大院領)을 넘어오거늘 충주에서 정예병(精銳兵)을 내어 1,000명을 격살(擊殺)하였다.²⁰²⁾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1231년(辛卯年) 이전까지 불행하게도 몽고인(蒙人)의 침구(侵寇)하여 국가의 우란(禍亂)은 가히 말로 다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야! 슬프도다. 우리는 보신(寶贛)을 다하여 해마다 2번씩 공부(貢賦)를 다하여 왔으나 징책(懲責)이 더욱 가하여지고, 또 전년에 대거하여 동쪽 번병(藩屏)의 여러 성이 순식간에 모두 손상을 입고 죽음을 당하자 이때를 틈타 예봉(銳鋒)을 풀어 곧 군사를 중원(中原 : 忠州)으로 옮겨 빗발 같은 화살과 돌(矢石), 천둥벼락 같은 북소리(鼓鼙)로 여러 달 동안 공격하니 남아있는 외로운 성이 거의 위태(危殆)하였나이다. 이때에 만약 이 성이 함락되었으면 기타의 여러 성보(城堡)는 자연스럽게 석권됨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²⁰³⁾

6) 맷는말

본 연구에서는 충주지역의 변천과정에서 특수성을 찾아 21세기를

199) 『高麗史節要』, 卷之十七, 高宗 安孝大王 四.

200) 『高麗史』, 卷二十四, 世家 卷第二十四 高宗 三.

201) 『高麗史』, 卷二十四, 世家 卷第二十四, 高宗 三.

202) 『高麗史』, 卷二十四, 世家 卷第二十四, 高宗 三.

203) 『高麗史』, 卷二十四, 世家 卷第二十四, 高宗 三.

준비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고구려의 국원성(國原城)이 변천하여 고려 태조에 들어 충주가 되었고, 고종(高宗) 때는 관찰사(觀察使 : 廳)를 설치하였다. 왜구의 침입을 피하기 위하여 역사실록, 경사, 제서(諸書) 등을 충주 개천사(開天寺) 그리고 복장사(卜藏寺)로 옮긴 일도 있었다.

무자각한 귀족사회 속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은 1232년 충주관노(忠州官奴)의 난을 지적할 수 있다. 995년 충주, 청주는 중원도(中原道)가 되었고, 13주 42현을 관할하였다. 충청(忠淸)의 이름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종(高宗) 때부터였고, 병사제도(兵制)는 6위 38령(6衛 38領)인데 1령에 1,000명씩 배치하여 수도와 국방을 담당케 하였다.

그리고 왕의 행차가 많았는데 평양(平壤), 금강산(金剛山) 그리고 충주에 왔었는데, 이러한 순주(巡駐)는 태조부터 관례와 같이 되었다. 행차 시에는 풍속 또는 전조(田組)의 감세(減免), 관원에게는 한 계급씩 올려준 일도 있었다.

목종(穆宗)이 충주로 향할 때 독을 올리고, 불이행하면 멸족한다는 위협까지 있었으나 결국은 현창미(縣倉米)로 밥을 지어 올리게 되었다. 충주 사람이 아비를 죽인 일이 있었지만 이것은 목수(牧守)가 백성을 가르치지 못한 일이라 하여 법관은 충주를 군(郡)으로 강등을 판정하였으나 왕은 신하의 말을 참작하여 강등하지 않았다.

충주는 내륙의 중심지이며, 국초 12창 중 덕홍창(德興倉)이 충주에 있었다. 준군(州郡)의 조세를 창에 수송하였다가 다음해에 경창(京倉)에 수송하도록 하였었다. 덕홍창에 배정된 조선수(漕船數)는 12소이며 평저선 1선으로 하여 200석을 싣도록 하였다.

육로(陸路)로는 참역(站驛)이 34개이고 여기에 역전, 역정, 역마를 두어 그 기능을 하게 하였고, 교통량과 중요성에 따라 대·중·소 3등급으로 나누어 공수전, 지전, 장전, 公須紫 관전 등을 급여하였다. 특히 역은 6과로 나누어 배정하였다. 전국에 523개의 역 중에 충청주도(忠淸州道)에는 34개의 역이 있었다.

993년에 모든 주, 부, 군, 현, 역,로 및 향, 부곡에 대하여 공수전지(公須田地)를 지급하였는데, 정(丁)의 다소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12목은 100결로 정하였다.

충주목에는 37개의 면이 있었는데 향, 소, 부곡이었던 것은 5개 면이며, 그 규모는 대체로 면정도로 보여지고 있다.

경제외적인 수취로 혹형으로 은(銀)을 바치게 했으나 당사자가 소유한 은을 모두 바쳐도 부족하여 30여근을 빌려 보충하였다. 또 충주에 내려가 환도(環刀) 1,000자루(1千柄)를 주조케 하였고, 둔전(屯田)을 경작케 하는 일이 있었으나 국역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수전(受田)케 하여 나라를 근본적으로 부강하게 하였다.

고려시대 충주는 지세에 따라 도읍지로 청한 바 있었으나 실현되는 못했다.

태조부터 평양 금강산 그리고 충주에 행차하였는데, 그 때마다 목민(牧民)은 손상이 적지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말 300필을 사육하게 하는 것은 주, 군에 곤욕을 주었다.

고려인의 정력과 기술이 가장 많이 경주된 것은 인쇄와 도자에 있었다. 인쇄도 목판, 조판 등이 발달하여 문종 때 주요지방, 특히 충주목(忠州牧)에서 진상한 서명 중 의약에 한 서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류생산(紙類生產)이 많았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3면이 바다여서 왜구의 침입이 많았고, 내륙지방인 충주에는 몽고군(蒙古軍)의 침입이 많았는데, 그 때마다 이를 격파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었다.

